



“K-스틸법, ‘수소값 인하’ 현장 목소리 담아야”

철강업계, 탄소중립 전환에
업계 부담 그대로 현실 지적
관세 등 통상대응 강화 촉구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전환을 위한 특별법)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철강업계에서 수소·전력 비용과 설비 투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지원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 시기가 빨라지는데 반해 철강업계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재정 지원과 에너지 대책, 시장 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허위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탄소중립 전환의 비용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수소 가격이 꼽히는데 업계는 관련 비용의 전향적 지원책을 원하고 있다. 국제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트랜지션 아시아는 수소환원제철이 기준 고로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수소 가격이 1kg당 1달러 수준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철강업계는 2000원/kg 대를 경제성 마지노선으로 보지만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청정수소 목표가는 2500원/kg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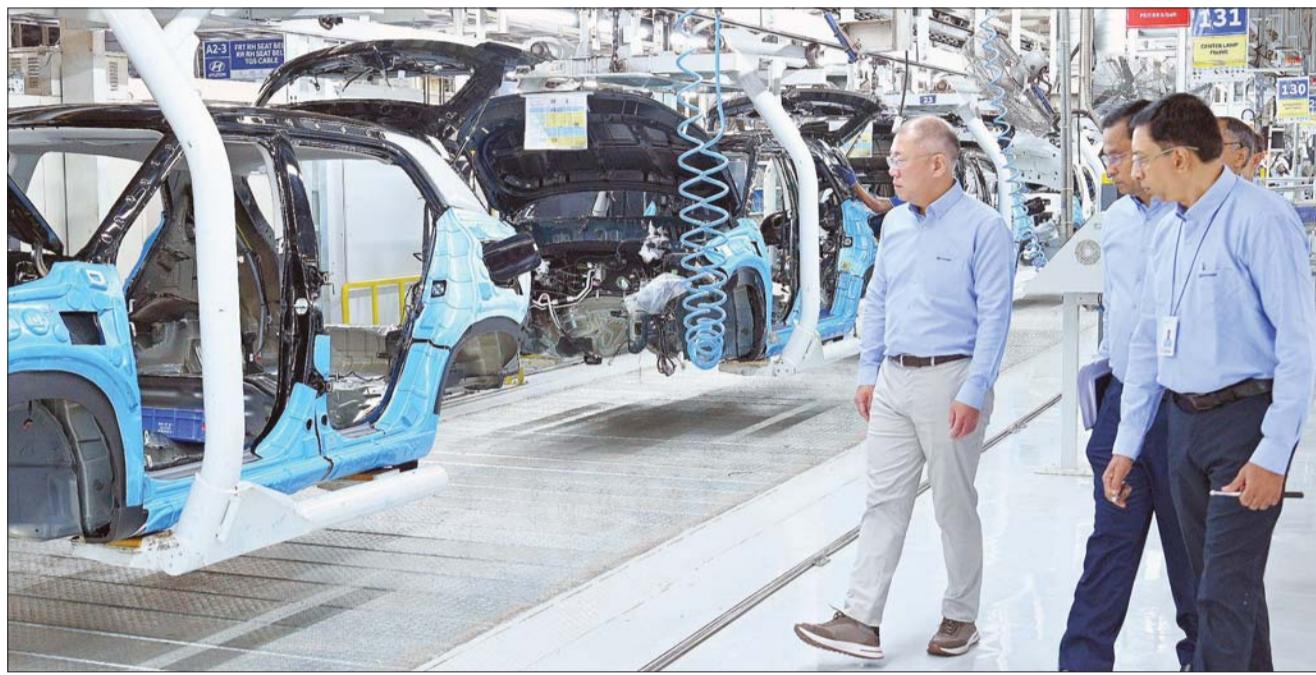
임종호 순천재일대 재철산업과 교수는 “철강산업 고도화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철강기업의 생존 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 등 실질적 비용 지원이 체감도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설비 투자와 에너지 비용 부담도 산업체질 전환에 있어 병목으로 지적된다. 포스코 하이렉스(HyREX) 데모플랜트(총 8146억원)의 국비 지원은 3088억원(38%)에 그치고, 대부분 R&D 예산으로 편성돼 설비 투자·운영비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수소환원제철은 전기로 기반 전환시 전력 소모가 기준 고로 대비 60% 이상 증가하며 자가발전이 어려워 외부 전력 의존도 1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료 기반 확충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철강지원협회는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고급 스크랩 확보를 위한 가공전문기업 지정제, 선별·정제 설비 투자 지원, 폐배터리 훈입차단 관리 강화, AI 선별 기술 설치·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장 질서 보완 요구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KS 인증 기준 강화와 비품질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점검 체계와 유관기관 협력 장치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혜온 인턴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현지 시간) 인도 전역의 사업장을 찾았다. 사진은 정 회장이 현대차 인도 첸나이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새해벽두 中·美·인도 ‘광폭 경영’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모빌리티·수소·AI·로보틱스 등
현재와 미래 사업영역 직접확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새해 벽두부터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중국·미국·인도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회장은 이같은 현장 경영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격전지인 미국에서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에서는 과거 점유율 확보와 미래 친환경차 분야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침체 속에서도 핵심 신흥시

장으로 급부상한 인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1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과 연계해 5일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행사에 참석했으며 6일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6을 찾아 앤비디아 젠슨황 CEO 등 업계 리더들과 만나 AI, 로보틱스 등 미래 분야 혁신 전략을 모색했다. 이어 11일에는 세계 인구 1위의 거대 시장 인도를 찾아 현지 생산 시설 등을 둘러보고 현지 공략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 회장의 새해 강행군은 거대 경제

권이며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3개국에서 모빌리티, 수소, AI, 로보틱스 등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사업 영역을 직접 확인하고, 고객 중심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현대차그룹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 회장은 인도 시장 공략에 특히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인도에 있는 현대차그룹 공장 3곳을 방문한 정 회장은 “현대차는 30년간 인도 국민의 사랑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인도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다른 30년을 내다보는 흄브랜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주)한화, 테크·라이프 ‘신설’… 김동선 사업군 분리

방산·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존속
존속법인 76.3%, 신설 23.7% 비율

(주)한화가 방산·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존속법인과 테크·라이프 부문을 아우르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에 나선다.

(주)한화 이사회는 14일 오전 인적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분할 이후 방산·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계열사는 존속법인에 남고,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부문과 한화 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라이프 부문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마사너리엔서вис홀딩스’에 편입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장부가액 기준으

로 존속법인 76.3%, 신설법인 23.7%다. 기존 주주들은 이 비율에 따라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받는다. 인적분할은 6월 임시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주)한화는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그동안 기업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 성장 전략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사업과 시장 대응 속도와 민첩성이 중요한 기계·서비스 사업이 하나의 범인에 묶이면서 전략 방향과 속도의 불일치, 자본 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이 그룹 전

반의 지배구조 정비와 승계 구도를 함께 정리하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은 테크·라이프 부문을 아우르는 신설법인을 이끌게 되며 담당 사업 영역이 명확해졌다. 방산·조선·에너지 등 그룹의 핵심 축은 김동선 부회장 중심의 지배·경영 체계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인적분할은 단순한 조직 재편이 아니라 한화그룹의 승계 구도와 지배구조를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승계 관련 불확실성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작년 고용률 역대최고
청년층은 3년째 하락
‘쉬었음 인구’도 늘어

지난해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면서 15~29세 고용률이 3년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또 이들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42만800명으로 전년대비 7000명 기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연령대의 연간 취업자 수는 2년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면에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청년층 고용률은 3년째 하락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5년 한 해 전체 취업자 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9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2021년 36만9000명, 2022년 81만6000명, 2023년 32만700명을 기록한 뒤 2024년(15만900명)과 2025년(19만3000명)에는 2년 연속 10만명대를 나타냈다.

데이터처, 12월·연간 고용동향
전체 취업자수 전년비 19만명 ↑
15~29세 고용률 1.1%p 떨어져
건설·제조 취업자 수 감소폭 커

건설업(-12만5000명), 농림어업(-10만7000명), 제조업(-7만3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업은 2013년, 제조업은 201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올랐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세를 보였다. 15~29세 고용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떨어진 45.0%를 기록했다. 2021년(4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간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46.6%에서 2023년 46.5%, 2024년 46.1%, 2025년 45.0%로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연간 실업자 수는 830만명으로 전년보다 7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8000명(3.6%) 증가했다.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42만800명으로 7000명(1.6%) 늘었다. 2020년 이후 가장 높고,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9000명으로 7000명(2.4%) 증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정부는 청년·지역 등 고용 취약부문을 보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구직·쉬었음 청년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압수수색…前보좌진 조사도
▲2차 소환 앞둔 김경…점점 짙어지는 증거인멸
정황

/사진 뉴시스

▲조국혁신당 “與 의원 재보궐 전략공천? 정청래, 이재명·이낙연의 길 중 택해야”
▲‘원조 친홍’ 윤한홍 입건에 흥준표 “살기 위한 선택, 이해한다”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사퇴…“정부안에 뒤통수 맞은 모욕감”
▲국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서 ‘한동훈 제명’ 비판…“지도부 바로잡아야”

고용부,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등 실노동시간 단축 팔 걷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점검단 출범
임금감소 없이 4.5일제 도입 기업
노동자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이 '근로시간 규제' 중심에서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전환'으로 본격 이동한다.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을 선택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출범시키고, 총 9363억 원 규모의 벤정부 후속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것으로 노사정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후속 조치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 업종 현황 파악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신설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되며, 교대제 개편이나 비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원 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실시간 노동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개소에는 전문 컨설팅 터너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 구조 전환에도 동시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공정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 도입을 지원해 공정 시간을 줄이고 불량률과 산업재해를 낮추는데 1705개 사업장에 463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 2000개소를 20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AI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총 109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조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1면 '정의선 새해벽두…'서 계속

정 회장 행보, 실제 성과로
올해 현대차 주가 40% ↑

높아진 대출문턱… 가계 수요 '은행권→2금융권' 이동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 감소
2금융권 4.8조 증가… 풍선효과 분석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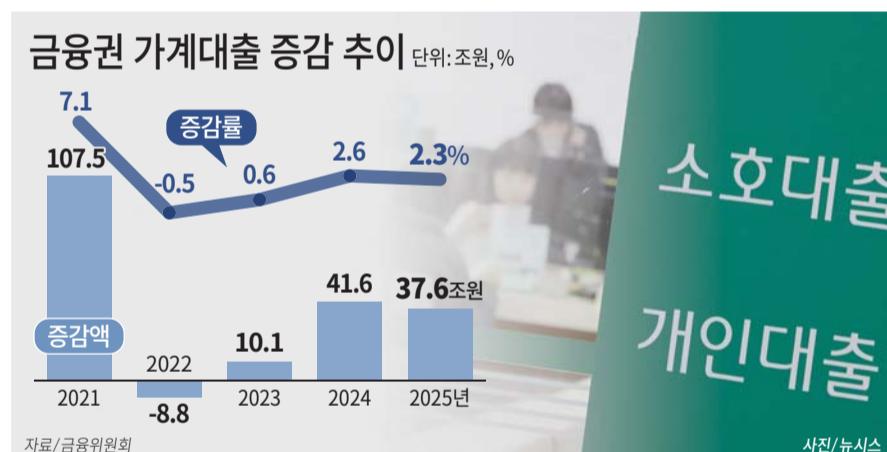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조 6000억 원 증가해 전년(41조 6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 6000억 원으로 1년 새 32조 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46조 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3조 4000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커졌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5조 원으로 1년 새 32조 4000억 원 늘었다.

월별로 보면 주담대는 ▲6월 한 달 간



5조 1000억 원 늘어난 뒤 ▲9월 2조 5000억 원 ▲10월 2조 원 ▲11월 8000억 원 ▲12월 -7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 700억 원으로 1년간 3000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2023년 -14조 5000억 원, 2024년 -6조 원으로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생활비 목적의 대출과 국내외 주식투자로 인한 대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치

않았다"면서도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며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감소한 가계대출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2금융권은 지난 해 1년간 4조 8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은 2023년 -27조 원, 2024년 -4조 6000억 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다.

특히 상호금융은 1년 새 10조 5000억

원이 늘었다. 절반 가량은 새마을금고가 주도했다. 새마을금고는 1년 새 5조 3000억 원 늘었다. 월별로 보면 ▲6월 7000억 원 ▲7월 7000억 원 ▲8월 1000억 원 ▲9월 7000억 원 ▲10월 4000억 원 ▲11월 5000억 원 ▲12월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농협은 1년간 3조 6000억 원이, 신협은 같은 기간 1조 5000억 원이 늘었다.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부동산 규제 등이 나오면서 하반기를 중심으로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업권에서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안정적인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밀려난 중신용자들이 2금융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리 강화 기조 하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세계 최대 14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거대 인구를 기반으로 강력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균 연령 20대 후반의 젊은 인구 구조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다.

현대차그룹은 제너럴모터스(GM)의 푸네공장(25만대)을 인수해 첸나이공장(82만 4000대), 아난타푸르공장(43만 1000대) 등과 함께 현지 150만 대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2024년 현대차 인도법인을 인도 증권시장에 사상 최대 규모로 신규 상장하며 현지 투자와 연구·개발(R&D) 능력도 강화했다.

앞서 정 회장은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과 연계해 지난 4~5일 양일간 베이징을 찾아 현지 기업과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급변하는 현지 시장을 직접 살폈다. 이 과정에서 징위쥔 CATL 회장, 하우치쥔 시노펙 회장 등과 사업 관련 논의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쟁터'로 불리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해 10월 현지 전략 모델인 전기차 '일렉시오'를 출시했고, 2030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6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지난 6~7일에는 CES 2026'에 열린 미국拉斯베이거스를 찾아 글로벌 빅테크 기업 주요 경영진과 면담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CES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오는 2028년부터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 자율주행차 '아이오닉5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 할 계획이다.

정 회장이 연초부터 세계 시장을 누비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만큼 현대차 주가는 연초 대비 40% 가량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40만 원을 돌파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금융위, 불법추심 초기 대응 강화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발표

금융위원회가 불법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부터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용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용에 통보한다. 현재 금감원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 통지 시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대응 요령 및 피해 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한다.

앞으로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이라도 금감원 직원이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한다.

불법사금용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용에 통보한다.

맞춤형 밀착 지원도 진행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통지 시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대응 요령 및 피해 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한다.

내한다.

선임 이후라도 추심이 발생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추심자에게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 추단 차단, 필요시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신속히 병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용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용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셔틀외교 완전 정착”… 韓, 동북아 ‘중재자’ 역할 부각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 마무리

정상 간 신뢰 구축, 협력 토대 확립
일본, 한국 핵심 외교 파트너 인정

韓 외교 위상, 동북아서 가치 증대
중일 갈등 속 韓, 중재자 역할 강화
조세이 탄광 유해발굴, 협력 첫 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혼란스러운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향후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일본 나라현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친교 일정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13일) 이 대통령이 묵는 호텔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영접한데 이어 이날도 행사 장소에 먼저 도착해 대통령을 맞이하는 등 극진히 대접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현지 시간) 나라현의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에서 열린 친교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방일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 차원에서 간소하게 이뤄졌음에도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준하는 환대를 받았다. 이는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위기를 타개할 창구로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인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한국 대통령 앞에서 독도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반응까지 나온 것을 감안하면, 중국과 사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까지 자극하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이(長生) 탄광 수

물 조선인 유해 발굴 DNA 감식 지원을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언급했다고 한다.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고, 일본 입장에서도 다른 이슈에 비해 덜 부담스러운 이슈기도 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협력은 다카이치 총리가 단독회담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 중 첫 번째 이슈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족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그 것대로 협력하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은 ‘셔틀외교’를 완전히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에 2개월 만에 일본 나라(奈良)현에서 또 양 정상이 만난 것

은 셔틀외교가 궤도에 올랐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 한국의 위상이 ‘중재자’로 격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지난 4~7일 국빈 방중한 이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공항 도착시 장관급 인사가 영접을 나왔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비롯해 중국 권력 서열 2~3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일본에서도 1박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5번의 대화 기회가 있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양측 모두에 절제된 메시지를 전하며 ‘국의 중심 실용외교’를 한 덕분이라는 평가다. 중일 갈등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최대 성과로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 친분 및 신뢰 관계’를 꼽았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증시 거래시간 연장, 글로벌 자금유치 첫걸음”

거래소 “독점서 선택받는 시장 변화”
코스피 최고치에도 불안, 리스크 산적
NXt 성장 의식한 수수료·시간 경쟁

이르면 6월 말부터 오전 7시에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거래시간 연장이 잡나간(해외 투자) 개미(개인 투자)를, 해외 증시를 떠도는 글로벌 큰 손을 한국증시로 불러 모을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지나치게 저평가된 환율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과 별도로 ‘프리마켓’

(오전 7~8시)과 ‘애프터마켓’(오후 4~8시)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운데 오전 8~9시를 제외한 12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거래소는 “거래 시간연장을 통한 글로벌 투자자 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12시간 거래 추진은 그 일환”이라 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증시 개장을 오전 7시로 앞당기는 배경에 대해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황을 포트폴리오에 조기에

반영하려는 국내외 투자자 수요를 조속히 충족시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장 구조도 일부 바뀔 전망이다. 애프터마켓 도입에 따라 현재 오후 4~8시에 운영되던 단일 매매가 폐지되고,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巴斯켓·경쟁 대량 매매 시간은 기존 오전 8~9시에서 오전 7~9시로 늘어날 예정이다. 장 종료 후 시간 외 대량·巴斯켓 매매도 오후 8시 까지 연장된다.

거래소는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6월 29일까지 제도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화, 경영 효율화·의사결정 구조개선 목표

투자 우선순위·자본 배분 최적화

(주)한화는 인적분할을 통해 테크·라이프 사업을 신설 지주사로 집결시키고 분산돼 있던 신사업 전략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한다. 사업 성격이 다른 포트폴리오를 분리해 경영 판단과 자본 배분 과정에서 누적돼온 비효율을 해소하고 각 사업군에 맞는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방산·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은 투자 기간이 길고 정책·규제 변수의 영향이 큰 산업인 반면 테크·라이프 부문은 기술 변화와 소비 트렌드에 따라 투자 시점과 의사결정 속도가 성과에 직결

되는 구조다. 한화는 이질적인 사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투자 우선 순위 혼선과 의사결정 지연이 반복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이사회 결의에 앞서 여러 차례 사전 설명회를 열고 사업별 현금흐름 구조, 투자 회수 기간, 리스크 요인, 계열사 간 자본 배분 방식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사업에서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전략 실행 속도에 차이가 발생해 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인적분할을 결정했다.

이번 인적분할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도 병행된다. /원관희 기자 wkh@

동해안 청정바다

수산물의 명소 포항

청정바다 포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으로,
청정바다의 천혜자원을 간직한 동해안 대표 수산물 생산도시입니다.

포항시

K-배터리, EU 시장 회복에도 지진부진… “체질개선 필요”

지난해 EU 전기차 판매량 32.8%↑
中, LFP 배터리 확대로 가격경쟁

북미시장 0.3% 성장… 정체 국면
韓, 中 제약 강화된 북미시장 공략
전기차 부진 보완 위해 ESS 전환

국내 이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가격 경쟁력 열세가 맞물리며 실적 반등의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이 뚜렷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시장 반등의 과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1~11월 기준 374만5000대가 판매되며 전년 대비 32.8% 성장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회복 속도가 빨라졌지만, 같은 기간 북미시장은 165만1000대로 0.3% 증가에 그치며 사실상 정체 국면에 머물렀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한국과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 이미지.

유럽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사이 배터리 주도권은 중국 업체들로 더욱 기울고 있다. 블룸버그INEF는 지난해 중국 내 리튬이온 배터리 팩 평균가격은 1kWh당 84달러 수준으로 글로벌 평균 가격(108달러)보다 크게 낮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비중이 높고, 대규모

설비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LFP 배터리는 현재 ESS용 공급이 중심이며, 전기차용 LFP는 아직 대규모 양산 확대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에너지밀도 등 성능 면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LFP 배터리가 이미 주요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계기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제약이 강화된 북미 시장을 핵심 전략 지역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북미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식으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기조 속에서 포드는 전기차 사업 축소와 일부 투자 철회를 선언했고, GM도 전기차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배터리 출하 환경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반면 유럽에서는 CATL이 독일 생산라인의 가동 확대에 나서는 한편 형가리를 거점으로 대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BYD 역시 형가리를 중심으로 유럽 내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거점 확대에 나서며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30%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전기차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ESS로 사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공장의 ESS 전환을 앞당겼고, 삼성SDI는 미국에서 2조원대 ESS용 LFP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SK온도 고정비 축소와 ESS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ESS 시장에서도 중국의 지배력은 절대적이다. ESS용 중국 배터리 가격은 kWh당 50~60달러 수준으로, 국내 업체들의 LFP 가격(90~100달러)과 격차가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기업의 체질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배터리 경쟁에서 주도권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며 “배터리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미래 첨단 산업 전반에서 해외 특히 중국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저비용·고효율’ 앞세웠지만 ‘성능·안전성’ 난관에 정체

中 딥시크 쇼크 1년

美 반도체 제재에 최첨단 칩 확보 막혀
컴퓨팅 자원 열세… 차기작 출시 미뤄
美 AI 기업, 공백 틈타 기술격차 벌려
韓 AI 전략 재정비 확산 계기 되기도



지난해 1월 등장한 딥시크 사(社)의 AI 딥시크는 빅테크 기업 AI 개발 비용의 1/10 수준이면서 동시에 당대 최고 수준의 AI와 일부 견주는 성능으로 전세계적 충격을 가져왔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서는 경쟁력과 라마3 대비 10분의 1 수준의 개발비, 짧은 연구진 중심의 인력 구성을 빅테크 주도의 AI 경쟁 구도와 인재 전쟁에 균열을 냈다. 139명의 짧은 연구진이 이뤄낸 성과는 글로벌 인재 경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3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중국 신생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딥시크는 챗GPT 일부 성능을 넘어

소스로 공개된 직후 전세계적 규모의 파란을 일으켰다. 초고성능 GPU와 초거대 자본 없이 순수 토종 인재들로만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전해진 후 앤비디아 주가는 딥시크 출시 하루 만에 17% 급락해 시가총액 약 5890억달러가 증발했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7.5%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브로드컴도 11% 내렸다.

특히 거의 이론적으로 존재했던 기술인 전문가 혼합(MoE)이나 증류(distillation) 등 비용 효율화 기술을 딥시크가 활용성을 입증하며 비용 효율화를 위한 기술들도 크게 주목 받았고 개발 트렌드를 변화시켰다. 알렉스 플랫 DA 데이비슨 수석 분석가는 “딥시크 출연 당시 중국이 미국보다 9~12개월 뒤쳐졌다는 인식이 자폐적이었지만 딥시크가 이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초기 충격과 달리 딥시크의 지

난 1년은 지지부진했다. 일곱 차례 업데이트가 진행됐으나 기존 모델의 훌륭한 성능에 그쳤고, 시장의 반응도 무뎌졌다. 개발 속도가 정체된 주원인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 때문이다. 최첨단 칩 확보가 막힌 상황에서 중국산 칩을 기반으로 개발하다 보니 성능과 안정성에서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딥시크 역시 컴퓨팅 자원의 열세를 인정하며 차기작 ‘R2’ 출시를 미루고 있다.

이러한 공백을 틈타 미국 AI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다시 벌린 점도 딥시크의 입지를 좁혔다. 오픈AI의 GPT-5, 구글의 제미나이 3,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피스 4.5 등 고성능 모델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미국의 AI 주도권은 더욱 공고해졌다. 딥시크가 증명하려 했던 ‘저비용 고효율’ 논리가 무색하게 빅테크들의 인프라 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되었고, 결과적으로 딥시크의 비용 혁

신은 첨단 모델 개발의 필수 요건인 막대한 자본과 자원 투입을 대체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한편, 딥시크의 등장은 국내에서도 AI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민간은 단기 추격이 아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논의는 곧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졌다. 경쟁력을 갖춘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 구조가 마련됐으며, 이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구체화됐다.

국내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딥시크 사례는 AI 혁신이 영리한 알고리즘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그 것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역설을 입증했다”면서 “미중 패권 다툼 사이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효율적인 모델 개발 능력은 물론, 안정적인 하드웨어 수급과 독자적인 생태계 확보를 병행하는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인벤티지랩, SC제형 혁신 이끈다… 글로벌 빅파마 협업 기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서
‘IVL-BioFluidic™’ 플랫폼 공개
항암제도 고농도·저부피 제형으로

이 축적해온 마이크로플루이딕(미세유체) 기반 약물전달시스템(DDS)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플랫폼으로, 항체 및 ADC 등 바이오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항체 의약품의 고용량 제형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점도 증가나 주입 한계 등의 기술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기존 정맥주사(IV) 중심의 치료를 피하주사(SC)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SC제형은 의료진의 손을 꼭 거쳐야 하는 IV제형과는 달리 환자가 집에서 1분 안에 직접 주사를 할 수 있어 의료기관과 환자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는 대

안으로 꼽힌다. 다만, SC 제형은 항암제와 같이 많은 양의 의약품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인벤티지랩의 IVL-BioFluidic™을 활용하면, 항체의약품 입자를 고농축된 마이크로스피어(미세입자)로 변형해 항암제와 같은 의약품도 피하주사가 가능한 고농도, 저부피 제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SC제형 개발에서 사용되던 히알루로나이트 등 추가 성분 없이도 고용량 제형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차별성과 상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인벤티지랩은 지난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적 약물전달체 컨퍼런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가 13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6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해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PODD 2025’에서 ‘IVL-BioFluidic™’을 글로벌 무대에서 처음 공개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당시 행사에서는 J&J, 로슈, 아스트

라제네카, 길리아드, 베링거인겔하임, 다케다 등 주요 다국적 제약사와 미팅을 진행하며, 기술협력과 공동개발, 라이선싱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CPhI 프랑크푸르트 2025’와 ‘BIO 유럽 2025’에 이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잇달아 주목을 받으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신규 협력 및 기술이전 협의 성과가 구체화될 것이란 기대가 모이고 있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이번 JP모건 행사 만난 글로벌 제약사들이 IVL-BioFluidic™ 기술을 이미 알고 찾아온 만큼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소개를 하는 기업들마다 남다른 반응이 느껴졌다”며 “올해 파트너링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계획이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한동훈 “기습 제명, 또 다른 계엄”… 張과 갈등 최고조

“윤리위원회 재심 신청 생각없어”
중진급 의원들 “징계 과해” 비판
장동혁 “해법 모색 고려하지 않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14일 새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당원계시판’ 논란의 책임을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한 것을 두고, 당내 내홍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징계 당사자인 한 전 대표는 이날 징계 수위에 대해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부터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새벽 A48쪽 분량의 결정문을 발표하고 징계자인 한 전 대표를 제명에 처한다고 공지했다. 당원계시판 논란은 ‘한동훈 지도부’ 당시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글을 익명의 당원계시판에 다수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또한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이 자당 소속 대통령과 가족, 주요 정치 지도자를 공격해 ‘분쟁’을 유발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정치적으로 중차대한 ‘해당행위’라고 판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는 게 윤리위의 설명이다.

다만 결정문 발표 이후 윤리위가 두 차례 내용을 정정하며,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징계부터 우선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韓 “허위 조작으로 제명… 또 다른 계엄 선포”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한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친한계가 아닌 중진급 인사들도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했다면서 “윤리위는 (징계 결정문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바꾸고 있다. 그렇게 바꾸면서도 제명하겠다는 것은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에 가져온 신청을 할 것인가는 물음에 “이 사안을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계엄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번 계엄을 막은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답했다.

당내 개혁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최고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이번 윤리위 결정은 장 대표의 혁신안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은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물론 여당 대표가 당원 계시판에 익명 뒤에 숨어 자당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잘한 일도, 정상적인 일도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이 행위에 대해 바로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처분을 내리는 것은 한 전 대표의 비행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張 “윤리위 결정 뒤집는 것 고려하지 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청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5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확정할 것인가는 물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게 10일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심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에서는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에는 일단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맞는지, 당헌·당규나 이전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원 계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와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당계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그사이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 “지난번 걸림돌에 대해 얘기하며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사형 구형에 與 “마땅해” 野는 언급 無

정청래 “법적으로 대못 박아야”
장동혁 “제가 언급할 사안 아냐”

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 전날(13일)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14일 여야 지도부가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한 구형’이라는 반응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안도하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이 사형

을 구형받았다. 제가 며칠 전에 ‘전두환, 노태우처럼 그렇게 구형을 해야된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며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다시는 내란의 ‘내’자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관련 당대표·대전 시장 정책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구형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짚은 답변을 내놨다.

/박태홍 기자

대전·충남 찾은 여야, ‘행정통합’ 쟁기기

민주 “장동혁 대표, 발 빼지 말아야”
국힘 “자치권 없는 통합, 빈 껍데기”

여야 지도부가 14일 충청으로 향하며 지역 최대 현안인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대전·충남 통합에서 발 빼면 안 된다고 경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는 통합은 빈 껍데기라 불구하고 반박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별도의 행정구역이었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대전충남특별시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는 구상을 뜻한다. 대전·충

남 통합 시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되며,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여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의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충남 서산 서산 축산종합센터 대회의실에서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행정통합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고 6·3 지방 선거는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관련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오늘

장 대표는 대전·충남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도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추진하자’란 발언을 하길 바란다”며 “안 그러면 이상한 것이다. 장 대표는 충남 출신 아닌가. 한입으로 두말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대전광역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만나 고도의 자치권, 재정권, 조직권 등 257개의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껍데기 일뿐이라며 지방선거용 졸속통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 발전연구원, 정재근 박사 등 최고의 자치 행정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국회에 제출된 특별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13일(현지 시간)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일본 총리가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펄’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이고 있다. /뉴스

李, 日 다카이치 총리와 ‘깜짝’ 드럼 합주

호텔 영접 등 이례적 장면 연출

한일 정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층 친밀도를 높인 모양새다. 첫날인 지난 13일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이 묵는 호텔을 직접 찾아 맞이하고, 양 정상이 ‘깜짝’ 드럼 합주까지 하는 등 이례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됐다. 14일엔 호류지(법랑사)를 방문해 친교 시간을 가졌다.

전날(13일) 이 대통령은 나라(奈良) 현 나라시의 한 호텔에 도착했다. 그런데 예정에 없이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호텔 현관에 마중을 나와 “제 고향에 오셔서 기쁘다”고 반겼다. 이 대통령은 “격을 깨서 환영해주시니 저희가 몸돌비를 모르겠다”고 화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호텔 측이 영접하기로 했지만, 총리 영접으로 격상됐다고 한다. 총리가 직접 외국 정상이 묵는 호텔로 찾아와 영접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반응이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 측의 ‘깜짝 이벤트’는 이어졌다. 양 정상의

‘드럼 합주’를 준비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학 시절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했다. 이에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총리님은 제 꿈을 모두 실현하셨다. 드럼, 스키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고 밝혀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낸 바 있다. 이 발언을 기억한 일본 측에서 ‘이 대통령의 위시리스트’인 드럼 연주를 준비한 셈이다.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 ‘펄’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인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즉석에서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드럼 연주법을 설명하면서 합주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드럼을 연주한 뒤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며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을 하고, 교환했다고 한다.

/서예진 기자 syj@

LOTTERIA™

치킨버거의 근본을 세우다!

파이어ihat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두툼하라
두툼해!
침작맨's PICK

그릭랜치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깔 래 야 깔 수 없는 무 적 의 치킨 버 거

통다리 크리스파 치킨버거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IPO 본궤도… 흥행 여부에 최우형號 연임도 결정

총 6000만주, 희망가 상단 9500원 시장 눈높이 반영 공모가 20% 낮춰 취임 첫 해 사상최대 순이익 기록 등 최 행장, IPO 성공 땐 연임 가능성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코스피 시장 상장을 본격 추진한다. 안정적 기업공개(IPO) 추진과 창사이래 최대실적이란 성과아래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이 연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 일 금융위원회에 코스피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총 공모주식수는 6000만주로, 주당 공모희망가 범위는 8300~9500원이다. 공모 희망가 상단기준 상장후 시간총액은 총 4조원 규모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3년에 이어 2024년 8월 증권신고서 제출까지 마친 바 있다. 다만 당시 케이뱅크는 공모 희망가 범위를 9500~1만2000원으로 정하고, 상장후 시가총액을 5조3000억원으로 기대했지만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한국의 카카오뱅크와 일본의 인터넷은행 라쿠텐뱅크를 비교회사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



케이뱅크 사옥.

/케이뱅크

로 선정, 합리적인 공모가를 산정했다”며 “시장의 눈높이를 반영해 당초 공모 시점 대비 약 20% 낮췄다”고 말했다.

◆ 외형 확장·건전성 강화

케이뱅크는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소상공인(SME) 시장 진출 ▲기술(Tech) 차별성 강화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구축 ▲ 디지털자산 등 신사업 진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6년 설립 후 2017년 4월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총자산 33조2692억원, 자기자본 2조 192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대면 아파-

트담보대출과 비대면 개인사업자 보증 대출,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잇달아 출시하며 현재 고객 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수신잔액은 30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하고, 여신잔액은 17조9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0.3% 증가했다. 특히 여신 중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11월 말 기준 2조1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1500억원) 대비 약 90% 급증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3분기 연체율은 0.56%로 세 분기 연속 하락해 2022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결

제은행(BIS) 종자본비율은 15.01%로 규제 기준을 상회했고, 이자마진(NIM)은 1.38%로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

◆ IPO 성공과 최 행장 연임 관심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의 연임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행장은 지난해 12월 말 공식 임기가 완료됐지만 임원후보주천위원회가 차기 행장 후보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 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됐다.

IPO의 성공여부에 따라 연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

을 실시하고, 20일과 23일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IPO 흥행 여부가 최 행장의 연임 판단에 직접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행장 연임사례가 없다. 심성훈 초대 행장은 첫 임기 3년 만료 후 경영 안정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6개월간 유임됐고, 2대 이문환 행장은 취임 10개월 만에 사퇴했다. 3대 서호정 행장 역시 단임 후 물러났다.

일각에서는 심성훈 초대 행장이 유상 증자 지연 등을 이유로 유임됐던 사례와, IPO를 앞두고 최 행장이 유임된 상황을 유사하게 보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체가 필요하다면 규제·내부통제 등에 명확한 사유가 있거나, 대주주와 이사회가 이미 포스트 상장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현 경영진이 이에 대한 신뢰를 못 주는 경우 등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 행장이 취임 첫 해인 2024년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케이뱅크 출범 이후 첫 ‘연임 행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신한금융 ‘AX 혁신리더’ 100명 선발… AI전환 가속

현업 실무자 중심… 전사적 AI 실행 전 직원 AI 역량강화 프로그램 병행

신한금융그룹이 신한금융 본사에서 인공지능(AI) 전환(AI Transformation·AX)을 위한 그룹 핵심 인재인 ‘AX 혁신리더’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업 중심의 전사적 AX 실행 단계로 전환한다.

신한금융은 AX의 성과가 현업 주도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주요 자회사에서 현업 실무자 중심으로 ‘AX 혁신리더’ 10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AI·데이터 기반 업무 혁신 과제 발굴 ▲반복·비효율 업무의 AX 관점 재설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주도한다.

‘AX 혁신리더’들은 먼저 ▲현업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이 AX 혁신리더들과 토크콘서트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서 바로 활용 가능한 AI Agent 기획·설계·개발에 대한 기본 교육 ▲각 사업부 환경에 맞춘 심화 교육을 이수한다. 이후 사내 생성형 AI와 비정형 데이터 플랫폼 등을 활용해 업무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Agent)를 직접 설

계·구현함으로써 AX 실행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AX를 전 직원의 일상적인 업무 방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AX 혁신리더’를 지속적으로 확대·육성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해 AX 내재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각 그룹사에서 선발된 ‘AX 혁신리더’ 100명이 참석해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경영진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실행 중심의 AX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옥동 회장은 14일 “신한금융은 지난해 경영진 대상 AI 교육을 통해 AX에 대한 인식과 가능성을 점검했다면, 올해는 현장에서 전 직원이 AI를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

이라며, “100명의 ‘AX 혁신리더’가 AI Agent 활용 능력을 극대화해 그룹 전반의 AX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GS건설, 한강변 정비 ‘성수1지구’ 수주전

‘비욘드 성수’ 차별화 전략

GS건설이 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성수1지구 수주에 나선다.

GS건설은 지난 12일 도시정비사업 실임직원 50여명이 성수1지구에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성수1지구) 현장에 모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라고 14일 밝혔다.

GS건설은 성수1지구 수주를 위해 차별화 전략인 ‘비욘드 성수(Beyond Seongsu·성수, 그 이상의 가치)’를 선언했다. 희일화된 하이엔드 브랜드 경

쟁을 넘어 성수1지구의 독보적인 입지와 상징성에 걸맞은 설계와 기술력,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대체 불가능한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전을 단순한 사업 참여가 아닌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그간 축적해온 성과를 시장에 입증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특히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내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주택 사업 전반에서 신뢰 회복에 주력해온 만큼 이를 성수1지구에 집약적으로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카드 ‘하이브리드 결제’ 특허출원

‘스테이블코인’ 우선 결제

KB국민카드는 하이브리드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카드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활용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허는 고객이 보유한 신용카드에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주소를 연동해 별도의 카드 추가 발급 없이 디지털자산과 신용카드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결제 시 전자지갑에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잔액이 우선 적용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는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 처리된다.

기술은 기존 카드 결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디지털자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상의 불편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객이 추가 카드를 발급할 필요 없이, 기존 카드 결제 경험과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디지털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향후 제도적 환경과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방향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지난달 은행대출 가계·기업 동반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지난해 12월 은행대출이 가계와 기업에서 동시에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호황 기대 속 1월 들어 4693선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쳤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은행대출은 가계대출이 11월 +2조1000억원에서 12월 -2조2000억원으로,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6조2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각각 감소 전환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7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5000억원을 기록해 동반 감소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한은은 연말 계절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대기업대출은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한도대출 일시 상환 등으로 +2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돌아섰다. 중소기업대출도 은행권 자본비율 관리에 따른 대출영업 축소와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으로 +3조8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도 위축됐다. 회사채 순발행은 11월 +4000억원에서 12월 -7000억원으로 순상환 전환했다. CP·단기사채 순발행 역시 -2조4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지금 흐름은 ‘대출 감소·연말 자금 이동’이 동시에 나타났다. 12월 은행 수신은 +7조7000억원으로 증가세는 유지했지만 전월(+36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은 기업자금의 일시 예치와 가계 상여금 유입 등으로 +39조3000억원 급증한 반면, 정기예금은 -31조9000억원 감소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美-대만 관세협상 마무리 단계 삼성, 파운드리사업 시험대 올라

TSMC, 미국 내 영향력 확대 전망
삼성, 차세대 공정 수율 확보 총력
“안정적인 고객사 수주가 핵심 과제”

미국과 대만이 관세 인하를 대가로 TSMC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관세협상을 마무리 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미국 시장을 둘러싼 삼성전자 파운드리 경쟁 환경에도 변화가 주목 된다.

TSMC의 미국 내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차세대 공정 수율 경쟁력 확보가 격차를 좁힐 핵심 과제로 꼽힌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 간 관세 협상이 현재 법률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이 대만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15%로 이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대만의 대미 투자 총액수와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TSMC의 미국증설 계획이 삼성전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앤비디아, 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이 미국 내에서 제조된 TSMC 칩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삼성전자의 수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따른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370억달러(한화 약 51조원)를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의 자국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TSMC의 애리조나 투자 확대 역시 이러한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TSMC는 애리조나주에 최소 5개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미 첫 번째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두 번째 공장 건설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의 조기 안착과 함께 TSMC 보

다 앞선 차세대 공정 게이트올어라운드(GAA) 수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nm) GAA 공정에서 TSMC보다 1년 앞서 양산에 들어갔으나 초기 수율 문제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2나노 GAA 공정 기술 안정화에 성공하면서 웰컴 등 대형 고객사 유치 가능성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2나노 GAA 공정은 TSMC의 2나노 공정과 달리 트랜지스터를 사면에서 감싸는 구조로 전력 효율과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TSMC의 증설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만큼 향후 어떤 규모와 일정으로 투자가 진행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TSMC가 첨단 공정을 확대하며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역시 생산 능력 확대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고객사 수주가 경쟁력을 가를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전자 모델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시연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SDV 이노베이터 어워즈’ 수상

모빌리티 솔루션 기술력 입증

LG전자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분야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글로벌 자동차 미디어 ‘모터트렌드’가 주관하는 ‘2026 SDV 이노베이터 어워즈’를 2년 연속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모터트렌드 SDV 이노베이터 어워즈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온 인물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 4회를 맞았다.

LG전자 VS사업본부 디스플레이가 차량(AIDV)까지 전장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분야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이스로 발전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선구자’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의 핵심 배경에는 ‘벤더블 무빙 디스플레이’를 통해 구현한 ‘사이 테크’가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화면 아래부분을 뒤로 접어 가리고, 디스플레이가 필요할 때는 펼쳐서 대형 화면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차량 내 디자인 완성도와 기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디스플레이가 향후 양산되는 프리미엄 완성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LG전자는 SDV에서 인공지능 중심 차량(AIDV)까지 전장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분야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현대로템, 로봇·수소 중심 조직개편

방산 등 전 영역에 혁신기술 접목
기능 중심 조직 슬림화… 효율성 개선



무인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항공우주분야에서는 민간 주도의 우주 수송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35t급 메탄 엔진 개발에 국내 최초로 착수했다. 연소 시 그을음 발생이 적어 재사용에 유리한 메탄엔진은 데이터·AI 기반 재사용 발사체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레일솔루션(철도) 부문은 AI 결합 상태기반 유지보수 시스템(CBM)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AI 기반 관제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AI 지능형 CCTV 자체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에코플랜트 부문은 항만 물류 자동화 핵심 설비인 항만무인이송차량(AGV) 등 AI 기반 스마트 물류 연구개발(R&D)과 상용화를 확대하고, 로봇·수소 사

업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로봇&수소사업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로봇영업팀·로봇연구팀을 신설한다. 기존 신성장추진팀과 수소에너지PM팀은 각각 R&H(Robot & Hydrogen) 사업기획팀과 R&H PM 팀으로 변경해 미래 산업계 변화에 선제 대응한다. 또 유무인복합체계센터와 로보틱스팀은 각각 AX(인공지능 전환)추진센터, AI로봇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공우주개발센터 내 항공우주시스 템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글로벌 불확실성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능 중심 조직을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했다. 조직은 기존 37실·15센터·186 개 팀에서 35실·14센터·176개 팀으로 슬림화해 업무 중복을 줄이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실행력을 높였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고 있다.

아울러 HD건설기계는 이날 공시를 통해 2026년 연간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 등 실적 전망을 발표하고,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HD건설기계는 2026년 매출 목표 8조 7218억 원, 영업이익 목표 4396억 원을 제시했다.

HD건설기계 문재영 사장은 “중장기 전략의 빠른 실행과 통합의 시너지를 통해 시장의 성장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겠다”며 “건설기계 사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그룹, 생산현장 로봇 자동화 속도

야스카와전기 업무협약 체결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3대 산업용 로봇 제조사인 야스카와전기와 협력해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의 주력 제품인 구동모터코어 생산현장에 로봇 자동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이날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천안사업장에서 심민석 포스코DX 사장, 김상균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사장, 야마다 세이고 한국야스카와전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모터코어를 품질검사 측정기로 이송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품질 등급 별로 자동 분류하는 로봇 시스템을 국내 천안·포항 사업장은 물론 폴란드·멕시코·인도 등 해외 공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야스카와와의 3자 협력을 강화해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된 피지컬 AI 기반 로봇 자동화를 그룹사뿐 아니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포항공장 구동모터코어 스테이터(Stator) 생산라인에서 야스카와로봇이 생산된 제품을 품질검사 측정기로 이송하고 있다. /포스코DX

라 대외 산업현장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뷰티·헬스케어 영역 포트폴리오 확장

태광산업이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견 제약회사·동성 제약을 인수한다.

태광산업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동성제약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성제약은 ‘정로환’과 염색약 ‘세븐에이트’, 탈모치료제 ‘마녹시딜’ 등을 생산하는 중견 제약회사다.

태광산업은 동성제약 인수를 계기로 기존 화학·섬유 중심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뷰티·헬스케어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화장품·생활용품 사업 진출을 선언한 태광산업은 최근 코스메틱 전문법인 ‘실

(SIL)’을 설립하고 동성제약을 인수함으로써 화장품을 넘어 제약·염모제·더마 및 헤어케어 영역을 아우르는 ‘뷰티·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태광산업은 동성제약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광산업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연합자산관리와 협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연합자산관리가 투자 중인 피코스텍 등을 통해 생산 제품의 외주(ODM·OEM) 전환 검토 및 생산라인 최적화를 추진하고, 판매관리비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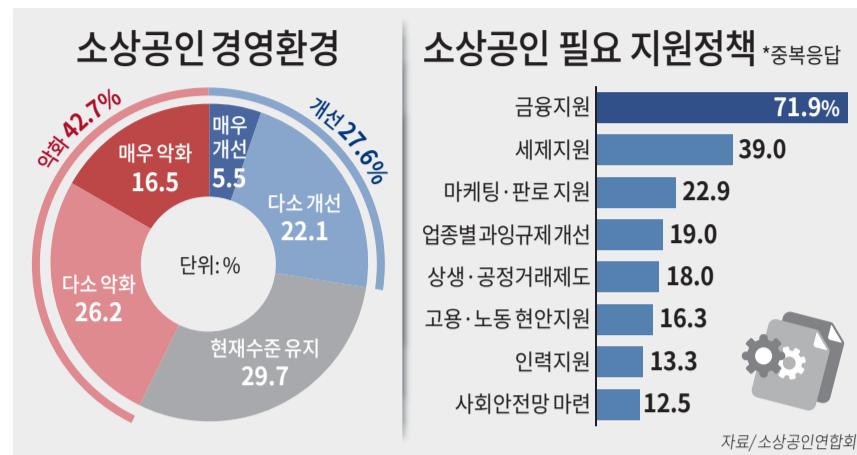
소상공인·중견기업 2題

소상공인 43% “경영환경 악화” 전망… 금융비용 부담 심화

소상공인聯, 1073곳 실태조사
자금사정, ‘악화’ 69% ‘원활’ 6%
높은 이자부담·대출한도 부족 문제
정책 1순위, 금융지원 72% 응답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 전망이 ‘개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자금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이자 부담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의 소상공인 1073곳을 대상으로 ‘2026년 소상공인 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 ‘악화’(다소 악화+매우 악화)가 42.7%로 ‘개선’(27.6%) 전망 보다 많았다. ‘현 수준 유지’는 29.7%였다.

올해 자금 상황 전망은 ‘어려울 것’(다소 어려움+매우 어려움)이란 답변

이 69.1%로, 6%에 그친 ‘원활할 것’(매우 원활+다소 원활)이란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통’은 24.9%였다.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선 72.9%가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가장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는 ‘금융비용’(48.7%)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인건비(38.1%) ▲원부자재비(36.7%) ▲임대료(33.5%)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금·금융 관련 예상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이자 부담’(59.4%)과 ‘대출한도 부족’(49.7%)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원하는 지원정책(복수응답)은 ‘금융 지원’이 71.9%로 1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세제 지원’(39%)과 ‘마케팅·판로 지원’(22.9%) 등이 주를 이뤘다.

고용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51.8%) 등의 이유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절반을 훌쩍 넘는 57.3%였다. 불확실성이 커지며 올해 고용 계획에 대해 ‘미정’이라는 답변도 22.8%로, ‘인원 축소’(11.8%)나 ‘인원 확대’(8%)를 능가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세제 지원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비롯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견기업 절반 이상 “투자계획 없다”… ‘시장 불확실’ 여전

중견연, 650社 대상 설문조사
투자계획 ‘없다’ 53.1%, ‘있다’ 46.9%
상반기 투자 계획, 하반기보다 많아
투자활성화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원해

중견기업의 절반 이상은 올해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보다 ‘투자 계획 없음’이 다소 늘었다. 투자를 ‘하겠다’는 곳은 해외보다 국내가 더 많았고 주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R&D 설비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650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투자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53.1%로 ‘있다’(46.9%)보다 더 많았다. 지난해 1월 조사 당시 ‘있다’는 49.6%로 올해보다 다소 많았다.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제조업(44.4%)과 비제조업(35.1%) 모두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1순위로 꼽았다. 이와 함께 제조업은 ‘경영실적 악화’(21.5%), 비제조업은 ‘투자 필요 업종 아님’(33.2%)도 투자 계획이 없는 주요 이유였다.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힌 중견기업들은 상반기에 ‘투자하겠다’는 답변(73.8%)이 하반기(67.9%)보다 다소 많았다.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늘리겠다’가 46.2%로 ‘줄이겠다’(16.4%)보다 다소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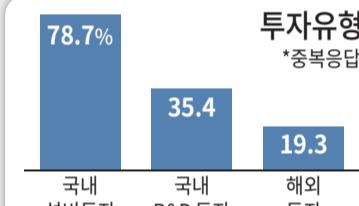
투자 규모 확대 요인으로는 ▲주력 사업 확장(29.1%) ▲노후 설비 개선·교체(22%) ▲신사업 진출 강화(21.3%) ▲해외 시장 진출 확대(20.6%) 등을 지목했다.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응답기업의 37.6%였다. 투자 규모는 100억~300억원 사이가 60%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도 10.4%에 달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정부 정책으로는 ▲법인세 인하·R&D 설비투

중견기업 투자계획과 유형

투자계획 없음 53.1% 투자계획 있음 46.9%



자 세제 지원 확대(40.3%)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18.9%) ▲금리 인하(15.8%) ▲정책 금융 확대(11.7%) 등을 꼽았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 공정위에 고발요청 벤처업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반발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 개최
숙박업소에 쿠폰 미사용 분 미환급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인팩과 계열사인 인팩이피엠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 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어때컴퍼니는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2017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역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해 총 5억 3519만원 등 두 회사의 위법행위로 하청 중소기업이 총 6억 716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 겸 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전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재검토 요청
“인위적 지분 규제 혁신 동력 저해”

벤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 움직임에 대해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 현실을 반영,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며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소유 분산 기준 도입을 밝힌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지분은 규제가 아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강제적인 지분 매각 대신 기업공개를 유도해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소유 분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의지를 꺾지 않도록 강제 매각 대신 상장 활성화와 같은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줄 것을 간곡히

KOVA (사) 벤처기업협회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요청한다”고 밝혔다.

벤처협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벤처협회는 “글로벌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모두 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통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소유 지분과 지배구조 역시 이런 도전과 혁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물”이라며 “기업들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일구어 놓은 성과들을 정부가 ‘핵심 인프라’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지분율을 제한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선 어떤 기업가도 위험을 무릅쓰 채 혁신적인 도전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국내 신산업 창업 생태계 위축과 벤처생태계의 혁신성을 떨어뜨려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승호 기자

한화비전

극한 환경에서도 ‘거뜬’
‘AI 보안 솔루션’ 선봬
두바이서 ‘인터섹 2026’ 참가

한화비전이 중동 최대 보안 전시회에서 극한의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AI) 보안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한화비전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보안 전시회 ‘인터섹 2026’에 참가해 ‘비온드 이미징, 비온드 인텔리전스’를 주제로 회사의 최신 기술들을 소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선 세계 최초로 공개된 ‘AI 러기다이즈드 PTZ(팬·릴트·줌) 카메라’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카메라는 최저 영하 50도, 최고 영상 60도의 날씨를 견디며, 서리 제거 및 결빙 방지 기술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한화비전



천혜의 자연과 함께 달리는 환상적인 라이딩! **2026
영월 메디오픈도
2026 YEONGWOL MEDIOFONDO**



2026. 3. 29 SUN 09:00

08:00 영월 동강체육공원 집결

접수기간

2026년 1월 6일(화)
10:00부터 선착순 마감시까지

참가부문

사이클 / MTB

참가인원

선착순 2,000명

코스거리

78Km(메디오픈도)

참가비용

80,000원

참가신청

yowo-mfond.com

관련문의

02-6743-33304

◎ 대회관련 상세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yowo-mfond.com

주최 (사)영월군체육회
Yeong-wol Sports Council

주관 YEONG WOL
Mediofondo

후원 YEONGWOL COUNTY

영월군의회

영월경찰서

영월소방서

영월문화관광재단

이투데이

영월군
자연기행

동강시스타

200만원 아이폰 40만원에 거래… 갤럭시는 30만원 돌려줘

KT 사태에 통신시장 과열

KT 위약금 면제기간, 31만명 이탈
번호이동 건수, 평균 대비 3배 폭증
SKT, 20만명 유치 '최대 반사이익'
알뜰폰, 초저가 요금제로 틈새 공략

KT의 해킹 사고 보상책으로 시행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기간이 종료되며, 국내 통신시장이 전례 없는 '가입자 대이동' 후폭풍에 휩싸였다. 단 2주 만에 31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KT를 떠났고, 소급 적용 대상까지 포함한 위약금 환급 규모는 66만 명에 달한다. 시장은 과열을 넘어 혼란 상태에 빠졌고,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은 사실상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달았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 일까지 KT에서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총 31만 290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유입을 제외한 순감 규모만 17만 9760명에 달한다. 여기에 알뜰폰 MVNO까지 포함하면 실제 감소 인원은



KT 위약금 면제 정책 마감일인 13일 서울 시내 통신사 매장에 KT 위약금 면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스

23만 8062명으로 불어난다.

면제 기간 동안 KT에서는 하루 평균 2만 2000여 명이 이탈했고, 종료를 앞둔 지난 12일과 13일 이를 동안 전체 이탈자의 31%가 몰렸다. 마지막 날인 13일 하루에만 4만 6120명이 번호를 옮기며 '막차 수요'가 폭발했다.

번호이동 시장은 단기간에 완전히 뒤집혔다. 평소 하루 평균 1만 5000건 수준이던 번호이동 건수는 3배 이상 뛴 4만 7000건 안팎까지 치솟았다. 유통 현장에

서는 '대린'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 출고가 200만 원대 아이폰 최신 모델이 40만 원대에 거래됐고,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은 단말기 가격 없이 오히려 30만 원 상당의 현금 페이백을 얹어주는 조건까지 등장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잠시 하던 지원금 경쟁은 KT 사태를 기점으로 한꺼번에 분출됐다. 갤럭시 S25 울트라, 갤럭시 Z 플립7 등 인기 모델은 전국 매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었고, 트래픽 급증으로 지난 5

일과 12일 월요일마다 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이탈 고객의 항병은 뚜렷했다. SK텔레콤이 20만 1562명, 전체의 64.42%를 흡수하며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LG유플러스는 7만 130명, 알뜰폰은 4만 1210명을 각각 확보했다.

알뜰폰 업계는 월 90원에서 110원 수준의 초저가 요금제를 전면에 내세워 틈새 수요를 파고들며 10명 중 1명 이상을 끌어왔다. 반면 KT 이탈자가 SK텔레콤으로 집중된 배경에는 LG유플러스가 여전히 해킹 관련 수사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과, SK텔레콤이 재가입 고객의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복구해주는 '원복 프로그램'을 앞세워 신뢰 회복 마케팅에 나선 전략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KT가 떠안게 된 실적 충격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무선 매출 감소액만 최소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해킹 보상 패키지 비용 4500억 원 중 일부와 유심 교체 비용 약 1000억 원이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증권가는 기저효과에 주목한다.

신영증권은 2024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감소 영향으로 KT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매출 6조 7349억 원, 영업이익 199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실적 전반의 방향성은 유지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KT는 위약금 면제 기간 이전인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지한 고객 35만 명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소급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환급 대상자는 약 66만 명으로 확대됐다. 환급 신청은 오늘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매장에서 진행한다. 환급금은 신청 시점에 따라 오는 22일과 2월 5일, 2월 19일에 순차 지급하며, 미신청 고객에게는 3차례에 걸쳐 개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KT 사태는 해킹 사고 자체보다, 보상 방식이 시장 전체를 얼마나 크게 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단기간 가입자 이동이 통신사 실적과 유통 질서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 대학생 마케팅·자문단 경험 지원한다

오는 25일까지 'Y튜처리스트' 모집 신규 73명 선발… 100명 규모 운영

KT가 25일까지 2026년도 활동을 함께 할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Y튜처리스트'를 모집한다.

Y튜처리스트는 2003년 '모바일 퓨처리스트' 1기로 시작해 올해로 24년째 운영되고 있는 KT그룹의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약 5, 600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신규 인원 73명을 선발해 기존 2년차 활동자와 함께 총 1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선발된 Y튜처리스트는 KT 사업과 연계한 팀 프로젝트와 Y브랜드 마케팅 활동에 참여한다. 제안서 작성과 콘텐츠 기획을 주제로 한 클래스, 스터디 지원,

멤버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무 역량을 쌓게 된다.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에 진출한 사례도 있다.

Y튜처리스트는 KT 공식 서포터즈이다. Z세대 자문단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Z세대 트렌드 연구기관 '대학내일20대 연구소'와의 워크숍을 통해 연간 트렌드 키워드를 도출하고, Y마케팅 기획과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태스크포스(TFT) 활동, KT 사업 알리기 캠페인 등에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3년간의 트렌드 연구 결과를 담은 책자 'Y트렌드 2025'를 출간해 교보문고와 밀리의 서재를 통해 배포했다. '셀고리즘', '풀더소비', 'AI:tion ship', 'h늘러', '듣풀트' 등 2025년 키워드를 비롯해 이전 연도의 트렌드 키워드

도 함께 소개됐으며, 키워드 선정부터 책자 제작까지 전 과정에 Y튜처리스트가 참여했다.

지원 자격은 국내 4년제 대학 1~6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2026년 학사 일정 기준)이다. 최종 선발자는 2월 말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1년차 활동 종료 후 2년차 활동 지원도 가능하다. Y튜처리스트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 마케팅혁신본부장 권희근 상무는 "Y튜처리스트는 대학생들의 시각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KT엠모바일, 알뜰폰 가입자 190만명 달성

국내 알뜰폰 사업자 최초 기록 전 고객 대상 기념 행사 진행



국내 알뜰폰 1위 사업자 KT엠모바일이 알뜰폰 최초로 가입자 190만 명을 달성하고, 31일까지 전 고객 대상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KT엠모바일

매장 방문 없이 개통이 가능하고, 이용 중에는 AI 상담을 통해 요금 납부, 사용량 조회, 요금제 변경 등을 상담사 연결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KT엠모바일은 가입자 190만 명 달성을 기념해 전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31일까지 KT엠모바일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LCK 결승진출 두고 'KT vs 젠지' 맞대결

롤 월드 챔피언십 4강에서 KT와 젠지가 오는 17일 맞붙는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e스포츠 팬들의 시선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4강 무대로 집중된다. KT 롤스터와 젠지 e스포츠가 결승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이번 4강전은 LCK를 대표하는 두 팀의 자존심 대결로 평가된다. KT는 공격적인 운영과 후반 집중력을 앞세워 이번 대회에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반면 젠지는 조직력과 오브젝트 관리 능력을 기반으로 한 완성도 높은 경기 운영이 강점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위메이드, '미르M'으로 中 시장 재공략

IP 통제력 강화, 장기 서비스 모델 구축

14일 위메이드는 모바일 MMORPG 미르M(사진)을 중국 시장에 정식 출시하며 미르 IP의 본격적인 재도약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과거 '미르의 전설'로 형성된 중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미르M은 위메이드가 자체 개발한 M MORPG로, 원작 '미르의 전설'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동양 무협 감성을 기반으로 한 전투 시스템과 성장 구조, 대규모 이용자 간 전투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중국 시장에 맞춰 UI와 콘텐츠 진행 방식, 운영 정책을 현지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글로벌 버전과 차별화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퍼블리셔와의 협력을 통해 사전 마케팅과 서버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출시는 위메이드에게 전략적 의미가 크다. 위메이드는 미르M을 통해 IP 통제력 강화와 장기 서비스 모델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최빛나 기자

"LCK 컵, SOOP 대형 화면으로 즐겨요"

스마트TV 앱, 케이블 연동 채널로 고화질 중계 제공, 경기 몰입도 강화

특히 팀 전력 분석, 선수 시점 화면 등 e스포츠 특화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대형 화면에 최적화된 UI를 적용했다.

LCK 컵은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 팀 전력을 점검하는 대회 성격을 지닌 만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다. SOOP은 케이블TV와 스마트TV 환경까지 확장하며 시청 경험 강화에 나선다. 이번 LCK 컵 중계는 기존 모바일·PC 중심의 시청 방식에서 벗어나 거실형 시청 환경을 본격 겨냥했다. SOOP은 스마트TV 앱과 케이블 연동 채널을 통해 고화질 중계를 제공하며, 경기 몰입도를 높이는 화면 구성과 실시간 데이터 연동 기능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도가 e스포츠 콘텐츠 소비 방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단순 개인 시청에서 스포츠 중계와 유사한 '거실형 관람 문화'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험한다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최빛나 기자

첫 4700에 IPO시장 후끈... 케이뱅크·무신사 출격 준비

〈코스피〉

케이뱅크·무신사 흥행 관심 끌려
대기업 계열 자회사 IPO 출대기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논란 재점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김모 씨(43)는 지난해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공모주 투자를 시작했다. 예·적금이 투자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의 생각은 코스피가 3000~4000을 가볍게 넘어서서 이때부터 달라졌다. 프로티나, 알지노믹스 공모주에 청약해 단숨에 수백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여유자금을 언제든 빨 수 있도록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둔다. 또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 수시로 들어가 기업공개(IPO) 일정을 챙긴다. 김씨는 “연초부터 증시가 무섭게 달아오르는 걸 보니 공모주 대박도 계속될 것 같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5% 오른 4723.10에 마감했다. 사상 첫 4700선을 넘어선 것이자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다. 국내 증시가 ‘오천파(코스피 5000)’를 바라보자 시장의 관심은 공모주 시장으로 향한다. 지난해 ‘따따불’(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배 상승) 행진을 이어간 공모주를 보면 투자자들



의 학습효과가 생긴 데다 올해도 케이뱅크, 무신사 등 초대애급 공모주가 줄줄이 출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케이뱅크는 공모가 밴드를 8300~9500원으로 제시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모 주식 수는 보통주 6000만주로, 공모희망가 하단 기준 모집금액은 4980억원, 상단 기준 최대 5700억원이다. 공모가 상단 기준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4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공모 구조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공모가를 이전 시도 대비 낮췄다는 점이다. 케이뱅크는 비교회사로 카카오뱅크와 일본 라쿠텐뱅크를 선정해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1.38~1.56배 수준으로 공모희망가를 책정했다. 지난 두 번째 IPO 도전 때 공모가 밴드는 9500원~1만 2000원이었는데, 상장 후 예상 시총으로 비교하면 상단 기준 5조원 대에서 3조 8500억원 수준으로 약 1조원 몸값을 낮춘 모습이다. 시장 눈높이를 반영한 조정과 더불어 이번에는 반드시 상장하겠다는 결의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무신사 역시 대형 플랫폼 IPO 후보

로 자금을 유치한 상태다. 일정 내 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장 여건과 무관하게 IPO를 추진해야 하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장이 선택이 아닌 ‘일정’이 된 기업들이 동시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026년 IPO 시장의 본질적 시험대는 대여 흥행 여부가 아니라 중복상장 리스크로 이동하고 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이나 그룹 내 핵심 사업부 분리 상장은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반복적으로 불러왔다. 실제로 거래소와 당국 역시 중복상장 이슈를 IPO 심사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공모주 시장이 빠르게 달아올랐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단기 수익률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자회사 IPO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투자자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형 IPO는 없었지만 공모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라며 “올해 IPO 관련 포인트는 케이뱅크·무신사 이후 이어질 자회사 상장을 시장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주가조작 뿌리 뽑는다”... 대응단 2팀 확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유기적 협업
기준 1팀서 확대해 대응 역량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 조직을 확대한다.

14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준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이다.

이번 확대 방안은 이날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실제 개정과 인사 별령, 교육훈련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한 뒤 2팀 체제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와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혐의



사건과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방식의 조직을 추가로 확대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확대 개편에 따라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추가로 신설해 총 2개 팀으로 운영된다. 각 팀은 금융위의 강제조사반, 금감원의 일반조사반, 거래소의 신속심리반이 유

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1팀 강제조사반에 자본시장조사과 소속 조사 인력 8명을 배치하고, 2팀에는 증원 인력 7명을 추가 배치 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투입한 뒤 단계적으로 20명까지 확대하고, 본원 조사 역량 보강을 위해 상반기 중 3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확대를 통해 원스톱라이크아웃 원칙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가조작 적발과 제재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채권·CD 전자등록발행 643조... 6% 증가

CD 발행 30%, 교환사채 136% ↑
교환사채 중심 메자닌 증권 발행 늘어

국내 채권·단기금융시장에서 전자등록 발행이 다시 한 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리 환경 변화 속에서도 회사채·CD 발행이 늘고, 메자닌 증권 시장이 교환사채를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발행 규모를 끌어올렸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5년 채권·CD 전자등록발행 규모가 643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605조 5000억원)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채권 발행 규모는 576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늘었고, CD 발행은 66조 9000억원으로 29.9% 급증했다. 특히 단기자금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CD 발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종류별로는 금융회사채가 207조 6130억원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하며 가

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특수금융채, 일반회사채, 일반특수채, CD 순으로 발행 규모가 커졌다. 지방채와 지방공사채 발행도 각각 50.0%, 45.5% 증가하며 눈에 띠는 확대 흐름을 보였다.

메자닌 증권 발행은 교환사채(EB)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2025년 메자닌 증권 발행 규모는 10조 8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2% 증가했다. 전환사채(CB)는 5조 4791억원으로 5.3% 감소했으나, 교환사채는 4조 7789억원으로 1년 새 136% 급증하며 전체 증가를 주도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5636억원으로 10.6% 줄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 발행 확대 배경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함께 디지털 기반 발행 환경의 안정화, 시장과 고객의 혁신 수요 대응,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에 따른 제도적 대응,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허정윤 기자

“지금은 한국투자”... 한투證 캠페인 전개

신규·국내주식 입고 고객 이벤트

한국투자증권이 ‘리부트 코리아(Reboot Korea) 2026, 지금은 한국투자’ 캠페인을 시작하고, 고객 혜택을 강화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리부트 코리아 2026, 지금은 한국투자’ 캠페인은 국내 자본시장의 재도약 흐름 속에서 고객들이 투자 기회를 보다 쉽게 체감하고 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거래 확대를 넘어, 고객의 투자 경험을 넓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신규계좌 이벤트와 국내주식 입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1월 말까지 뱅키스 주식 계좌 신규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KOSPI 200 종 추첨을 통해 선정된 종목의 주

식 2주를 지급한다.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1년간 우대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또 3월 말까지 국내주식 입고 고객에게 최대 501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고객이 다시 시작되는 시장 흐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설계했다”며 “캠페인 기간 동안 고객의 시장 참여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실적 중심 혜택을 통해 국내주식 투자 저변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한투운용 금현물 ETF, 순자산 4조 돌파

국내 원자재 ETF 중 최대 자금 유입

이다.

ACE KRX금현물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 2021년 국내 자산운용사 중 최초로 선보인 금 현물형 ETF로, 한국거래소가 신출·발표하는 KRX 금현물 지수를 추종한다. 금 현물 ETF는 선물 월물교체(롤오버) 비용이나 재간접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70% 한도로 투자 가능하다.

/허정윤 기자

산업부, 탄소중립 비용 부담 낮춘다 설비투자 등 2500억 규모 사업 추진

K-기업 '그린 전환' 뒷받침
저리융자 등 다양한 유형 사업
설명자료 제작… 접근성 개선

산업통상부가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4일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2025년 12월 기준 1.3%)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선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신규·250억 원), ▲제품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협력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신

규·105억 원) 등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은 프로젝트당 시설자금 최대 500억 원, 연구개발(R&D) 자금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은 총 투자금의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장기 저리 금융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신설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은 기업이 설비 구축을 통해 기대하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과 톤당 지원 희망액을 제출하면, 탄소 감축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일률적 보조금 방식과 달리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산업부는 이들 사업을 포함해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6년도 산업 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설명자료에는 지원 대상과 분야별로 사업 주요 내용,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그간 개별 사업별 헤어져 있

던 정보를 기업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설명자료 제작은 지난해 11월 열린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 계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1일,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과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등 기업 관심도가 높은 4개 주요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사업별 세부요건과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실제 기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소재 및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도 마련했다"며 "올해 산업부의 25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김성환 “사람·자연 공존하는 사회 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재생에너지·재난대응 등 과제 점검
김 장관 “소중한 환경 가치 높여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과제 등을 점검했다.

기후부는 “김성환 장관이 주재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관장 등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위주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홍수·기수 등 물 재해 대응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기반 정수장 운영 고도화 계획 및 수상태양광 등 수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 기후재난에 대비해 발전용 댐, 저수지, 하구둑 등과의 연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물산업 신생기업(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도 당부했다.

한국환경공단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과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시행에 따른 이행관리 방안에 대해 살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

다. 또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 지동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국립공원공단에 대해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본격적인 운영·관리 계획,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 등 생태서비스 강화 방안, 산불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국립공원 방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맞춤형 홍보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추진을 당부했다.

국립생태원에는 장항습지 등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전 세계인이 찾고 싶은 국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금융 확대,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의 추진계획을 물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기후부 보고에서 올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시설 운영체계, 유류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일부 지방 소규모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간이 소각기 활용 온실가스(메탄) 감축 시범사업은 조속히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후부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고, 소중한 환경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수부,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단속

설 앞두고 부정 유통 선제적 차단

해양수산부가 민물장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으로 속여 판매되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

어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홍문표(가운데) aT 사장이 13일 농업회사법인 농산을 찾아 파프리카의 생육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aT

홍문표 aT 사장, 지역본부 사업성과 점검

광주전남·전북지역본부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

제해조류박람회과 연계해, 수산물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 협력 강화 및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소재 파프리카 수출업체 농업회사법인(주)농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동절기 파프리카 작황을 점검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 사장은 전북지역본부 직원들과 만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을 통해 K-푸드 수출 영토 확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농가 소득강화 등 10대 과제 성과 창출”

송미령 장관 “국민 목소리 반영 최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제시한 농정 기조를 현장 정책고객 앞에서 ‘실행 단계’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갖고, 올해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

한 10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올해 두 차례 공공기관 업무 보고를 통해 밝힌 농식품 분야 업무계획을 정책수요자인 국민·농업인·업계·지자체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유관 단체, 청년농·스마트 농업인, 식품·수출 및 유통업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지방정부 공무원 등 130 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 과정은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보고는 형식적인 정책 나열이 아니라 ‘체감 성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식량안보 강화를 비롯해 유통구조 개선

및 먹거리 돌봄 강화, K-푸드+ 수출 확대, AI 스마트농업 확산,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재생에너지 확산, 청년 농 양성 및 공동영농 확산, 농촌 활력 제고, 동물복지 강화, 축산업 구조개선 등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소관 국장들이 직접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국정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농업 분야 AI 전환 등 신규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면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집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분야별로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정책고객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며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변화가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속도와 성과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권익위, 도원아파트 재산권 행사 길 열어

창녕군청서 현장조정회의 개최

(120세대)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사용 검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실제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기로 했다. 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시자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되, 관련 분쟁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서약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M I/T, F, E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미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경남도, '경남형 피지컬 AI' 개발 등 제조 혁신 1.2조 투자

특화기술 개발 1조 이상 투입
창원국가산단 AX 실증 추진
'대한민국 제조 AI 메카' 실현

경남도는 AI 기반 제조 혁신에 1조 1909억원을 투입, 제조업의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959억 원과 비교해 4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투자는 경남이 대한민국 제조업 AI 전환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과제 반영부터 산업통상부·중소기업벤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국회 예산 조율까지 단계적 전략을 펼치며 정부 정책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구체화해 왔다.

경남도는 1조 1909억원 규모의 AI 제조 혁신 프로젝트로 도내 제조 기업을 전통 제조에서 AI 제조로 전환시키는 산업 혁신을 본격화한다. 투자는 첨단 기술 개발, 산업 전반의 AX 확산, AX를 위한 인프라 조성, AI 고급 인재 양성 등 4개 분야에 집중된다.



경남도 이미화 산업국장이 1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 제조 AI 대전환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조 AI 특화 기술 개발에는 1조 355억원이 투입된다. 제조 AI는 실제 기계와 설비 제어, 물리적 충돌과 오차 통제가 필요한 고난도 기술로 산업별 공정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개발이 필요하다. 경남은 대중소 제조 기업이 고루 분포하고 우주항공·조선·방산·원자력 등 첨단 산업이 모인 제조 생태계를 갖춰 제조 AI 분야를 이끌 최적 입지를 보유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남형 제조 피지컬 AI 개발 및 실증 시범사업, 가전 제

조 산업 AI 기반 벤류체인 협업 기술 개발, 발전용 가스터빈 블레이드 AI 자율 연속 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 항공기 기체 부품 무중단 가공 기반 무인 생산 AI 자율제조 핵심 기술 개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등이 진행된다.

AX 확산을 위해 창원국가산단 AX 실증산단을 추진한다. 대표 AX 선도 공장을 지정해 생산 공정을 실증하고 개발 기술을 관련 기업에 확산해 제조 기업의 AI 전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

이다. 국산 AI 기술 기반 LG전자 대중 소 상생형 협력 모델로 도내 중소기업의 AI 기술 도입을 돋는다.

경남도는 2018년부터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펼쳐왔으며 구축 수는 해마다 증가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3014개 기업이 스마트 공장 구축을 완료했다. 최근 3년간 스마트 공장 구축은 2023년 134개사, 2024년 238개사, 2025년 279개사로 늘었다.

제조 AI 메카 실현을 위한 인프라로는 경남 제조 AI 데이터 센터 구축,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AI 전환을 이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AI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반도체 아카데미 등 인재 양성 사업을 펼쳐 올 해 490명이 지역에서 양성돼 기업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경남은 조선·방산·자동차 등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제조 AI 도입의 최적지"라며 "경남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을 지속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中企 운전자금 신청하세요"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융자 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 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한 뒤 경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 소재지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추천 결과는 경북도 경제진흥원의 서류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시·군으로 통보될 예정이며, 추천이 확정된 기업은 설 연휴 전인 2월 13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

구포시장서 '선 결제' 캠페인

부산시는 지난 13일 오후 북구 구포동 '정이있는 구포시장'을 찾아 '부산형 선(善)결제' 캠페인을 열고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현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선결제 확산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명절을 앞둔 시장 분위기를 비롯해 전통시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 소비 촉진과 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북도, 벤처펀드 1조 시대 '활짝'

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
공장설립·IPO 등 성과 이어져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누적 벤처펀드 1조 원 시대의 새 역사 를 썼다. 단순한 수치 달성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심상치 않다. 전북의 펀드가 지역 기업에는 '성장의 사다리'로, 수도권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며 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역 창업의 한계를 넘어 기술력에 날개를 단 대표 사례로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기업 (주)아이에스피가 꼽힌다. 전북에서 태동해 도 펀드의 지원으로 도약한 이 기업은 20억 원의 도 펀드를 포함해 총 55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기업 성장이 지역의 기회로 이어지며 청년의 꿈을 담은 이야기도 있다. 이차전지 전문 기업 에너에버배터리 솔루션(주)은 도 펀드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모델이다. 15억 원의 도 펀드

투자를 받아 총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이 기업은 2022년 완주군에 공장을 설립한 후 전체 직원 70명 중 50여 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며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수도권 기업도 전북으로 향하고 있다. 그린바이오 분야의 (주)팡세는 전북 펀드를 마중물 삼아 익산에 둑지를 틀고 글로벌 도약을 준비 중이다. 본사와 공장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전격 이전한 팡세는 15억 원의 도 펀드를 포함해 총 8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완료하며 양산 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에서 코스닥까지, 연구소 기업의 비상도 펼쳐졌다. 전북 펀드 투자의 최고 결실은 기업공개(IPO)다. 군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차량 보안 솔루션 기업 (주)페스카로는 10억 원의 도 펀드 투자를 시작으로 총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난 12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전북 투자 생태계의 저력을 증명했다. /전북=정훈 기자 taiji1819@

전남도, 지역 축제 활성화 2억 투입

'2026년 전남도 대표축제' 10개 선정

전라남도는 시군 대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흥 물축제 등 10개를 '2026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 세계로 도약토록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선정된 대표축제는 ▲최우수 '정남 진 장흥 물축제' ▲우수 '고흥 유자축제', '보성다향대축제',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유망 '목포항구축제', '광양매화축제', '담양대나무축제',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해남미남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다.

전남도는 대표축제로 선정된 10개 축제에 최우수 5000만 원, 우수 3000만 원, 유망 1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함평국향대전. /전남도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대표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전남의 얼굴이자 관광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전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울산시, '깨끗한 클린울산' 만든다

맑은 공기질 실현 등 정책 목표 제시

울산시가 올해 환경 분야에 전년 대비 9.0% 증가한 44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깨끗한 클린울산' 조성을 나선다.

시는 2026년 환경 정책의 핵심 목표로 4개 분야를 제시했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맑은 공기질 실현, 기후 변화 대응 협력 제고, 자원 순환 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울산 클린업 전담팀을 통해 전 지역 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 전개한다. 연말까지 도시철도 기동대를 상시 가동하고, 환경단체와 공공기관, 구군에 정비 물품을 제공해 국가산단 가로변과 계절별 맞춤 정비를 진행하며 2028년 국제정

원박람회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생물 다양성 확보와 울산국가지질공원 조성도 추진된다. 겨울철 야생동물 조사로 생물종 목록을 정비하고, 독수리 생태체험장과 철새 여행버스 운행 등 시민 참여형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대기 환경 관리도 강화된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를 가동해 소각시설 배출량 감축,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등 3개 분야 16개 사업을 펼친다.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진행된다. 도시 확장과 처리 용량 부담 완화를 위해 청량·여천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을 신설하고, 회야·온산 시설을 증설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대구시, 1조 규모 中企 경영안정 자금 지원

대구시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관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융자 지원 규모를 1조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내수침체 장기화, 고금리와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원 자금은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예정으로, 특히 올해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402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 3

종을 신설한다.

신설 육성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모빌리티, AI 로봇 등 대구형 특화·혁신 기업에 대한 500억 원 규모의 지원, 전통 시장과 골목상권 활력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 500억 원, 지역전략산업 육성 자금 402억 원 등이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점에서 가능하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생물 다양성 확보와 울산국가지질공원 조성도 추진된다.

겨울철 야생동물 조사로 생물종 목록을 정비하고, 독수리 생태체험장과 철새 여행버스 운행 등 시민 참여형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대기 환경 관리도 강화된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를 가동해 소각시설 배출량 감축,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등 3개 분야 16개 사업을 펼친다.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진행된다. 도시 확장과 처리 용량 부담 완화를 위해 청량·여천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을 신설하고, 회야·온산 시설을 증설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부산시교육청

교사 44명 '수업혁신대회' 입상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주최 '2025년도 전국 수업혁신 사례연구대회'에서 부산 교사 44명이 입상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에서는 총 84명의 교사가 출품했으며 이 가운데 초등교사 37명, 중·고등학교 교사 6명, 특수교사 1명이 수상했다.

특히 초등교사 12명, 고등학교 교사 1명, 특수교사 1명 등 14명이 최고 등급인 전국 1등급을 받았다. /부산=이도식 기자

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홈플러스 회생절차 한숨 돌려

〈MBK파트너스〉

김 회장 비롯 4인 구속영장 기각
“檢, 회사 정상화 위한 노력 오해”

불구속 상태, 회생절차 속도 기여
최고 결정권자 신변 자유로워야
향후 M&A 과정 등서 신속 결정

법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채권자기 협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4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법조계는 구속영장 기각이 향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하고 있다.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방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게 내려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기업회생 신청을 숨긴 채 1164억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영장 기각 이후 성명을 내고 “김병주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책임은 기각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이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제 범죄 특성상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법원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김수희 법무법인 아심 변호사는 “구속의 핵심 요건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인데, CEO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의 경우 신변 확보가 어렵지 않고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가 많아 구속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액 1조원이 넘는 ‘디몬·위메프 사태’의 경우에도 구영배 전 큐텐 대표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사법 리스크의 정점이었던 오너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홈플러스가 추진 중

인 구조혁신형 회생 절차는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 홈플러스는 최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 회장의 불구속 상태가 회생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주요 경영진이 구속되고 그 사유가 회계 장부 조작으로 인정된다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며 “이 경우 본 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 우려가 있었기에, 회생 절차의 성공을 위해서는 영장 기각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수희 변호사 역시 “회생 절차는 법원의 주도로 진행되기에 구속 여부와 별개로 볼 수도 있지만, 최고 결정권자의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회생 계획안이 실행되어야 향후 M&A 등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원 규모의 단기채권(ABSTB)을 발행하고 1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고의성 입증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영장이 기각되자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파트너스

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문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

롯데마트, 초저가 피자·핫도그로 물가부담 ↓

고물가에 초저가 델리상품 라인업 강화
6800원 피자, 1500원 핫도그 선봬
오늘부터 전 점포서 한정수량 판매

롯데마트는 고물가로 인한 외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15일부터 전 점에서 ‘68피자’와 ‘15핫도그’를 출시하고 초저가 델리 상품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68피자’는 한 판에 6800원, ‘15핫도그’는 개당 1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책정됐다. 롯데마트는 매일 오후 12시와 5시,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점포별로 피자 25~50판, 핫도그 60~100개를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68피자’는 불고기와 페퍼로니 2종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산 밀로 만든 도우에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넣어 풍



롯데마트가 선보이는 요리하다 68페퍼로니피자.



요리하다 15핫도그. /롯데마트

미를 살렸다. ‘15핫도그’ 역시 국내산 돈육 함량 95% 이상의 고품질 소시지를 사용해 맛과 식감을 모두 잡았다.

롯데마트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재료 대량 매입과 조리 공정 단순화 전략을 택했다. 피자는 냉동 상태로 입고해 매장에서 굽기만 하면 되도록 설계했고, 핫도그 재료 역시 손질된 상태로 조달해 인건비를 절감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주문 데이터를 활용해 폐기율을 최소화했다.

롯데마트·슈퍼 이채현 델리개발팀 상품기획자는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가성비 델리 상품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로 지속적으로 선보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롯데웰푸드 딸기 디저트 11종 선봬

롯데웰푸드가 봄 시즌을 맞아 딸기를 활용한 한정판 딸기 디저트 11종을 선보인다. 올해 콘셉트는 딸기와 다양한 맛을 조합한 ‘스트로베리와 친구를 소개합니다(스친소)’로, 기존 딸기맛에 우유·요거트·크림치즈는 물론 피스타치오·초코·바나나 등 이색적인 조합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건과 제품은 빼빼로, 카스타드, 칠때파이, 말랑카우 등 7종으로 구성됐으며, 빙과는 ‘구구’ 브랜드를 통해 딸기&크림치즈 조합의 콘·바 제품 3종을 출시한다. 베이커리로는 딸기크림과 국내산 꿀을 더한 ‘미니샌드 딸기&꿀’을 선보인다.

출시를 기념해 ‘스친소 초성 완성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품 패키지의 ‘ㅅㅊㅅ’ 초성을 활용한 콘텐츠를 SNS에 업로드하면 응모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태국 명품 산지서 들여온 망고 맛보세요”

신세계百 셀렉트팜, 해외 확장 첫사례
최상의 맛 위해 엄격한 품질기준 적용

신세계백화점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업계 최초로 해외 지역 산지에서 들여온 프리미엄 망고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망고 세트는 신세계백화점의 자체 지정 산지 브랜드인 ‘셀렉트팜(Select Farm)’을 해외로 확장한 첫 사례다. 신세계는 태국 최대 망고 산지인 차층사오(Chachengsao) 지역의 전문 농장과 손잡고 재배부터 수확, 선별, 물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했다. 단순 수입을 넘어 현지 농가와 기획 단계부터 협업해 품질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신세계백화점 최원준 식품생활담당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했다. 당도와 향이 가장 뛰어난 ‘후숙도 85%’ 구간의 상품만을 선별했으며, 현지에서부터 국내 입고 시점까지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국내 도착 후에도 청과 바이어가 직접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고객이 상품을 받는 설 명절 기간에 맞춰 최적의 후숙 상태가 되도록 조절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태국 망고로만 구성된 ‘신세계 태국망고 세트(6입, 7만5000원)’와 국내산 사과·배를 함께 담은 ‘신세계 사과·배·태국망고 세트(9입, 11만원)’ 등 2종을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 최원준 식품생활담당 상무는 “앞으로도 국내외를 아우르는 엄격한 품질 관리로 명절 선물의 품격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대한항공 라운지 리뉴얼 맞춰

‘라면 라이브러리’ 첫 도입

오뚜기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내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 리뉴얼 오픈에 맞춰, 라운지 내 새롭게 조성된 ‘라면 라이브러리(Ramen Library)’에 자사 대표라면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라면 라이브러리는 이번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 리뉴얼과 함께 처음 도입된 공간으로, 기존 일부 컵라면 위주의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봉지면을 즉석 조리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라면 서비스가 특징이다. 대한항공은 K-푸드와 라면의 글로벌 인기를 반영해 공항 라운지 내 식음(F&B) 콘텐츠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당 공간을 새롭게 마련

했다.

‘라면 라이브러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53번 탑승구 맞은편 4층에 위치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 내에 조성됐다.

오뚜기는 해당 공간에 자사 대표라면 14종(진라면 외)을 공급한다. 이용객은 다양한 라면 메뉴 중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즉석 조리 기기를 통해 직접 조리한 라면을 라운지 내에서 즐길 수 있다.

오뚜기는 라운지 신규 오픈에 맞춰 라면 라이브러리에 참여함으로써 공항 라운지라는 글로벌 이용 환경에서 자사 라면을 K-푸드 콘텐츠로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출국 전 대기 시간이라는 이용 특성에 맞춰 간편하면서도 친숙한 메뉴를 통해 프리미엄 고객 경험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천공항 최대규모 푸드코트 ‘고메브릿지’

CJ프레시웨이, T2 동편점 열어

CJ프레시웨이가 인천국제공항 내 최대 규모 푸드코트인 ‘고메브릿지’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동편점을 14일 신규 오픈하며 총 4개 점포 약 1500석 규모의 고메브릿지 라인업을 완성했다.

고메브릿지 T2 동편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하는 푸드코트 중 최대 면적인 1730.23m²(약 523평)의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

CJ프레시웨이는 앞서 오픈한 3개 점포를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T2 동편점에 모두 녹여냈다. 입점 코너는 다양한 국적의 이용객이 찾는 인천국제공항 특성을 고려해 한식부터 중식, 캐주얼푸드, 아시안식 등으로 폭넓게 구성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식에서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가



14일 오픈한 인천국제공항 고메브릿지 T2 동편점 흰 모습.

‘2025 인천공항 맛있는 메뉴’ 대상으로 선정한 ▲자연담은한상(불고기 비빔밥)이 대표 메뉴로 꼽힌다. ▲육수고집(돼지고기 김치찌개) 등 앞서 오픈한 점포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고메브릿지 대표 코너들도 모두 입점했다.

고메브릿지 T2 동편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팔도지짐이(서울식 고기완자전), ▲저스트핫도그(미트칠리 핫도그) 등 신규 코너를 선보인 것도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차기 블록버스터 노린다… ‘K-바이오시밀러’ 경쟁 본격화

‘스텔라라’ 특허 종료돼 선점 총력
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 등 시장 공략
‘키트루다’ 2029년·2031년 만료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 만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앞세워 시장 공백을 파고들며 선점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카누맙)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혁신 제형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에피즈텍’의 사전증전 펜 제형에 대해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했다.

펜 제형은 환자가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자가투여 환경에서 사용 편의성을 갖춰, 유자요법, 만성질환 치료 등에서도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삼성바이오에피스 연구원들이 실험을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된다. 정식 발매는 올해 상반기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승인은 국내에서 우스테카누맙 성분의 의약품이 펜 제형으로 개발된 첫 사례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포함해 기존 바이오시밀러들은 사전증전형 주사제로만 발매되어 왔다.

현재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경쟁 대열에는 셀트리온, 동아에스티 등도 합류해 있다.

셀트리온의 경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카마’와 ‘코이볼마’를 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우스테카누맙 성분의 사전증전형 주사제이며, 지난해 12월 유럽 의약품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자동주사제(오토인젝터) 제형을 추가하는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권고를 받았다.

후발 주자인 동아에스티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룰도사’는 지난해 1월

독일을 시작으로 5월 미국 등으로 진출했다. 이후 해외시장에서 1분기 40억 원, 2분기 50억 원, 3분기 50억 원 등으로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스텔라라는 지난 2024년 기준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약 215억 5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2023년 9월과 2024년 7월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경쟁 구도가 자리잡았다.

전통 제약사인 종근당, 대웅제약 등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에 쓰이는 듀피젠틱(성분명: 두필루맙)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공략한다.

종근당은 유럽 의약품청(EMA) 및 영국 의약품규제청(MHRA)에서 듀피젠틱 바이오시밀러 ‘CKD-706’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은 유럽 최초다. 종근당 CKD-706 개발을 본격화해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종근당은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네스밸’과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루센비에스’

를 개발한 바 있다.

대웅제약도 첫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로 듀피젠틱 바이오시밀러를 선정한다. 우선 앞서 지난해 7월 홍승서 박사를 바이오시밀러사업본부장으로 선임한 상황이다. 홍승서 박사는 셀트리온 연구부문 사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다.

듀피젠틱은 오는 2029년 유럽, 2031년 미국 등에서 특허가 만료될 예정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듀피젠틱은 총 8개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도 적응증 확대, 사용 연령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매출 1위의 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2024년 ‘SB27’ 임상 3상에 진입하고 이어 셀트리온이 지난해 8월 ‘CT-P51’ 임상 3상에 착수했다. 키트루다 물질특허는 2029년 11월과 2031년 1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만료된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바이오, 올해 첫 수주… 위탁생산 계약

JPMHC서 日 라쿠텐메디칼과 체결
광면역요법 기반 두경부암 치료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2026년 첫 수주 계약을 맺으며 항체·약물접합체(ADC)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건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 가동을 시작하고 연달아 3건의 수주 실적을 확보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한 데 이어 올해는 글로벌 입지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일본 라쿠텐메디칼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12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라쿠텐메디칼의 암호진 바티아 최고운영책임자(왼쪽부터)과 미나미 마에다 사장,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제임스 박 각자대표와 신유얼 각자대표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계약 체결을 기념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라쿠텐메디칼의 암호진 바티아 최고운영책임자(왼쪽부터)과 미나미 마에다 사장,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제임스 박 각자대표와 신유얼 각자대표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계약 체결을 기념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록 설계한 항체에 빛 반응성 물질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종양 부위에 적색 광을 조사해 표적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혁신 치료법으로 알려졌다.

라쿠텐메디칼의 해당 치료제는 이미 일본에서는 조건부 조기 승인 체계 하에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 상업 사용 경험을 확보했다. 현재 미국, 대만 등 다수 국가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

고 있다. 향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도 임상시험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뉴욕 시리큐스 바이오 캠퍼스를 통해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리큐스 캠퍼스는 글로벌 임상 및 상업화에 요구되는 고품질 제조 시스템과 안정적 공급 능력을 갖췄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콜마비앤에이치, ‘글로벌 HACCP’ 획득

건강기능식품 ODM 업계 최초
세종3·음성공장, 동시 적합 판정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글로벌 HACCP’ 인증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ODM 업계 최초 사례이며 콜마비앤에이치의 세종3공장과 음성공장은 동시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글로벌 HACCP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의 최신 기준을 반영해 기존 HACCP를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한 제도다. 식품 방어, 식품 사기 방지부터 생산시설 보안, 외부출입 통제, 원료 위·변조 방지 등까지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세종3공장은 설비·공정·위생 전반에

서 글로벌 HACCP이 요구하는 품질 및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세종3공장은 스마트 시스템과 친환경 자동화 설비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일관성을 높이고 있다. 또 업계 최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춰 연간 정제 18억 정과 분말 스틱 4억 5000만 포를 생산할 수 있다.

음성공장은 액상, 연질캡슐, 젤리 등 다양한 제형을 생산하는 복합 생산기지다.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품질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글로벌 HACCP 인증 획득은 생산 현장의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끌어 올린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식품안전문화를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국내 첫 반려견 아토피 신약 허가신청

대웅제약 가려움·피부 염증 완화

대웅제약이 동물의약품 개발에서 성과를 거두며 성장동력을 다각화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24일 국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성분명 ‘플로디시티닙’의 반려견용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플로디시티닙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반려견용 JAK 억제제 계열 아토피 치료제다. 대웅제약은 자체 발굴한 소분

높이면서도 부작용은 낮출 수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23년 ‘플로디시티닙’ 임상 2상을 완료해 2024년 임상 3상을에 진입했다. 이후 지난해 말 임상 3상을 마무리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 현재는 동일 성분을 기반으로 인체용 의약품 임상 1상도 병행하고 있다.

임상 3상 결과, 투약 2주차부터 병변이 빠르게 개선됐다. 피부 병변의 범위와 중증도를 평가하는 CADESI 지수가 56점에서 44점으로 감소했다. 투약 최종 시점인 12주차에는 35점까지 줄었다.

/이정하 기자

자 신약 물질 ‘플로디시티닙’을 반려동물 전용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JAK 억제제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염증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기전을 갖춰, 가려움과 피부 염증 완화에 쓰인다.

특히 플로디시티닙은 피부 질환과 밀접한 JAK3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동시에,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다른 경로까지 함께 억제해 효과는

예약 판매서 총 6만여 개 조기 완판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에 힘입어 신상품 ‘두바이 미니 수건 케이크’를 출시하고 전국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CU는 지난해 10월 선보인 ‘두바이 쫀득 찹쌀떡’은 출시 두 달여 만에 180만 개가 팔려나가며 포켓CU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품질 대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CU의 두바이 콘셉트 상품 누적 판매량은 현재 까지 830만 개를 기록 중이다.

이번에 매장에서 정식 판매되는 ‘두바이 미니 수건 케이크(4900원)’는 CU의



/CU ‘두바이 미니 수건 케이크’

두바이 디저트 시리즈 중 가장 많은 35g의 피스타치오 카다이프를 함유했다.

이 상품은 앞서 진행된 초도 물량 및 예약 판매에서 총 6만여 개가 조기 완판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CU는 향후 ‘한입 두바이 쫀득 찹쌀떡’, ‘두바이 쫀득 초코’ 등 라인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라면보다 맛있고, 커피보다 따뜻한,
삼각김밥보다 꽉 찬 우리의 이야기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원작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원작자 :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사진 강상욱 | 제작PD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주최·주관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 문의 02-332-4902



CJ나눔재단, 문화다양성 확대 '문화부 장관' 표창

CJ나눔재단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단체 부문에서 민간 재단이 해당 표창을 받은 것은 CJ나눔재단이 처음이다. 나눔 플랫폼 'CJ도너스캠프' 통해 문화 소외 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창작 역량 육성에 힘써왔다.

/CJ나눔재단



동아오츠카, '스포츠 안전 분야' 공로 인정

동아오츠카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 스포츠 현장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아오츠카는 2025년 한 해 동안 스포츠 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공익광고 송출 ▲폭염 대응 매뉴얼 배포 등 실질적인 예방 중심 활동을 펼쳐왔다.

/동아오츠카



현대건설, 3개 창업지원기관과 안전문화 확산 MOU

현대건설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창업지원기관과 건설 안전 혁신 기업 공동 발굴 및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임병천 현대건설 안전기획실장 등 각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건설



하나은행, 인하대병원과 유산 기부 업무협약

하나은행이 인하대병원과 유산 기부 문화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인하대병원 임직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 제고 ▲기부자 맞춤형 금융 상담 ▲신탁을 활용한 기부 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KT&G 상상마당 부산

로컬 아티스트 '봄눈' 전시

KT&G가 로컬 아티스트 작품인 '봄눈' 전시를 오는 23일부터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진행한다. 해당 기획 전시는 지역 유수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KT&G 상상마당 부산의 문화공연 프로그램으로 김선우·박현지 작가가 참여했다. 김선우 작가는 감성적 표현을 기반으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고, 박현지 작가는 공간과 체험 요소를 결합한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아시아나항공, T2서 날아올라… 승객 혼선방지 총력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탑승수속카운터 동편 G-J열 인천공항 진입로에 안내문 부착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운항을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04시 55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한 OZ177편이 아시아나항공 운항 아래 처음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도착했다. 2터미널을 통해 처음 출발한 항공편은 07시 06분에 출발한 오사카행 OZ112편이다. 이로써 향후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함께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 통합항공사 출범을 향한 가장 큰 준비를 마쳤다.

제2터미널에서의 탑승수속은 3층 동편에 위치한 G-J열 카운터에서 진행한다. G열은 백드롭(BAG-DRO)



아시아나항공이 14일부터 인천공항 제 2 여객터미널에서 운항을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양사 직원들이 터미널 이전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P) 전용 카운터, H열은 백드롭 카운터와 일반석 카운터가 병행 운영되며, 비즈니스클래스승객과 우수회원은 J열 카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라운지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라운지 4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터미널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님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천공항 진입로에 전광판 및 가로등에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내/외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노력은 물론, 터미널을 잘못 도착한 손님들을 위한 대책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민솔 인턴기자 mnskim@metroseoul.co.kr

제1터미널로 잘못 도착한 승객을 위해 기존 탑승수속 카운터 C구역에 안내 데스크를 별도 운영하고, 터미널 안내 어깨띠를 두른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C구역 카운터와 3층 8번 게이트에서 안내를 실시한다. 안내 데스크는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와 협력해 오도착 손님 중 출발시간이 임박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터미널 간 긴급 수송 차량도 운영, 손님들의 원활한 여행을 돋는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출범할 통합항공사가 번영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대차 아이오닉9

세계 여성 올해의 차 '대형 SUV' 선정

WWCOTY서 2년 연속 수상 최대 수준 실내공간 등 꼽아

현대차는 전기차 아이오닉9이 '2026 세계 여성 올해의 차(WWCOTY)'에서 최고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SUV)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WWCOTY는 54개국 84명의 여성 자동차 기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총 6개 부문에서 최고의 차량을 선정한다. 아이오닉9은 등급 최대 수준의 실내 공간, 500km가 넘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등을 높게 평가받아 최고의 대형 SUV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산타페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의 대형 SUV 부문을 수상하며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마르타 가르시아 심사위원장은 "아이오닉9은 첨단 기술과 실용성이 어 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명확히



현대차 아이오닉 9.

보여주는 모델"이라며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 성능과 뛰어난 실내 공간, 높은 품질을 갖춰 대형 전기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9은 전동화 전환에 대한 현대차의 확고한 의지와 기술력을 담은 모델"이라며 "글로벌 고객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가스안전공사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

위조명함으로 물품 대금 탈취 시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임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시도가 포착됐으며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의뢰하고 대금을 편취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 시기별들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접근해 납품을 요청하면서 위조된 명함과 문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돼 범행 수법이 한층 정교해졌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모든 물품 구매 및 용역 계

약이 '나라장터'와 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전화·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이른바 이면 거래를 알선하거나, 특정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공사에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29개 전지사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아동복지시설에 '안심카 23대' 기증

한수원, 누적 687대 지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국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추가 지원했다.

한수원은 지난 13일 경주 본사에서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을 열고,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에 통학 차량 23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수원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한 차량은 누적 687대에 이른다.

'안심카 플러스'는 소외계층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돌봄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단순한 차량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안전 운행을 위한 관리와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있다.



한수원이 지난 13일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차량 지원 사업인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수원

2014년부터 13년째 도서 나눔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 13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렉서스 복합문화 공간 커넥트투에서 '2025 도서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인 약 1만2700권의 도서를 비영리 독서진흥단체 '팽스기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서 기부 캠페인은 2014년부터 13년째 이어온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대표적인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 참여해 기부한 도서를 도움이 필요한 곳

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 캠페인에는 렉서스 복합문화 공간 커넥트투 방문객을 비롯해 전국 렉서스·토요타 공식 딜러,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도서는 팽스기브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지역 작은 도서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독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포해 아동·청소년들의 학습과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전보 △부동산 시장과장 백경원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통계정책과장 송준행 △고용통계과장 김락현

부음

▲조징자씨 별세. 이병태(창원서부경찰서장)씨 모친상 = 13일, 경남 창원시 신세계장례식장 VIP실, 발인 15일 오전 8시, 장지 경남 함안군 선영. (055)715-5444

UAM,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하성용의

스마트카 'TALK'

최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자율 비행 AAM과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기(eVTOL)의 개발은 UAM의 미래를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및 제도적 체계이다.

정부는 UAM의 실용화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비행 고도 및 경로제한의 UAM 비행 규제, 공역 관리, 안전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제도들은 신속한 기술 발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모호하여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UAM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더불어, 규제 완화

는 중국 기업들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DJI와 같은 드론 제조사들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접근 방식은 한국의 법 제도가 보다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럽은 UAM에 대한 접근 방식이 더욱 체계적이지만, 각국 간의 규제가 상이하여 통합적인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유럽연합의 EASA(유럽항공안전청)는 UAM 규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각 국가의 법 제도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유럽의 사례를 참고 할 때,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UAM 산업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제도·인증·실증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 FAA와 유럽 EASA 수준의 선제적 인증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기체 안전성·운항 기준·소음 규제·도심 인프라 기준을 포함한 표준화된 국내 UAM 인증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지자체와 더욱 확대된 실증사업을 추

진해야 한다. 이는 해외 시장 진출 시 중복 인증 부담을 줄이고, 국내 기술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또 UAM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국산화가 요구된다. 전동 추진 시스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배터리 안전 기술,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Avionics) 등 핵심 요소 기술에 대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증 중심의 R&D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UAM을 단순한 미래 교통 수단이 아닌 새로운 항공 산업 생태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UAM 기술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단위의 강력한 규제기관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중국의 유연한 접근 방식과 유럽의 체계적인 규제 체계 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다 개선된 법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서 기업들이 R&D에 투자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한국 UAM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UAM의 미래는 법과 제도의 유연성에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통찰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KASA 회장

신뢰로 버텨야 할 때

기자 수첩

차현정
(산업부)

가전업체가 수요 침체와 원자재·부품 비용 부담이 겹치며 어려운 업황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가전 기업들이 외형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수익성 방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올해는 본격적인 수요 회복보다는 '버티기 싸움'이 시험대에 오르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TV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조원의 영업익을 기록했으나 TV·가전 사업에서는 1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LG전자 역

시 TV등 디스플레이 제품 수요 부진과 마케팅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MS) 사업본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단순한 수요 둔화에 그치지 않는다. 샤오미, 하이센스, TCL 등 중국 가전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경쟁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더욱이 샤오미는 단독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대하며 브랜드 노출에 적극이다. 과거 '가성비 브랜드' 이미지에 머물던 중국 가전 기업들이 이제는 디자인과 기능 측면에서도 빠르게 개선된 제품을 내놓으며 소비자 접점을 늘리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남아 있다. 품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는 평가와 달리 보안·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쉽게 사라지

지 않고 있다. 스마트TV와 가전이 개인 정보와 생활 데이터를 다루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가전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다.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 중국 업체들과 맞붙기보다는 신뢰·품질·사후 서비스·보안·역량 등에서 차별화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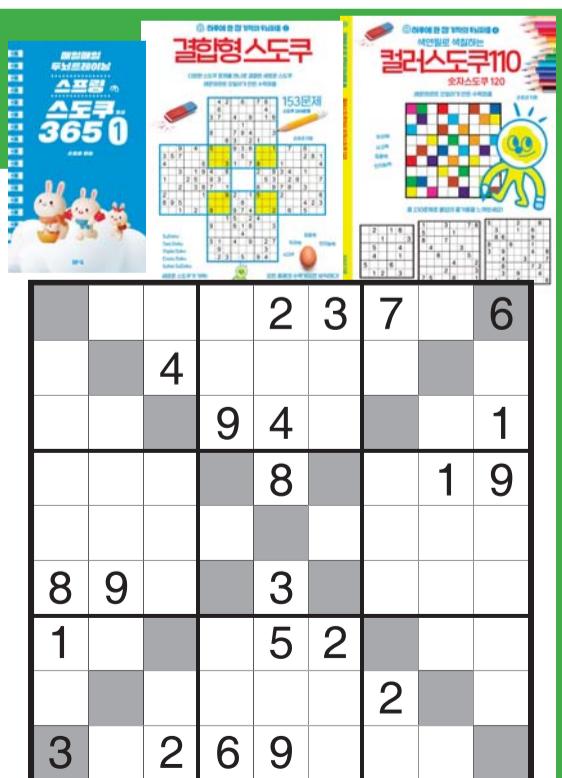
결국 어려운 업황 속에서 살아남는 힘은 단순한 판매량이 아니라, 얼마나 탄탄한 브랜드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브랜드 신뢰를 지키면서 수익성을 방어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누가 더 싸게 파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믿고 쓸 수 있는 브랜드냐'가 승부를 가릴 것이다.

/hyeon@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민지도의 웹드메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활인도서

오늘의 운세

1월 15일 (음 11월 2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조직의 일에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잘 살펴라. 48년생 아직은 한 번 더 생각 하자. 60년생 신경성 질병으로 고생하니 건강을 생각. 72년생 속 보이는 행동은 자체를. 84년생 전날에 뿐만 씨앗이 좋은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



37년생 직장이나 밖에서 이성에게 한눈팔지 않도록. 49년생 생각 없이 한 말이 원수 가 될 수. 61년생 어여 더위에 활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외출을 삼가야. 73년생 동료의 도움으로 어렵던 일 해결. 85년생 조심이니 화재보험을.



38년생 새로운 계획으로 집안에 재물운이 들어온다. 50년생 첫째신용으로 주변을 개선하라. 62년생 영업직장에서 꾀부리지 않도록. 74년생 일이 계속 이어지니 자부심도 늘어난다. 86년생 지혜를 나누 공유하니 주변의 존경이 따른다.



39년생 화를 내면 나만 손해이다. 51년생 능력이 안 되면 제발 성실하기라도 해라. 63년생 이성과 불화의 해결책은 헤어지는 것뿐. 75년생 열 사람마다 자신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 87년생 너무 자부심이 지나치니 혼자 피곤하다.



40년생 비늘 가는 곳에 실이 가니 원만함이 요구된다. 52년생 매매시 상대방의 속임수를 주의. 64년생 변명보다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자. 76년생 배우자에게 성실함을 요구해도 안 되는 것을. 88년생 일 때문에 먼 여행을 해야.



41년생 배우자를 의심하여 불화가 이어진다. 53년생 아침부터 행운이 찾아온다. 65년생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 되지 않겠는가. 77년생 이웃과 한 가지 이익을 두고 다툼이 발생. 89년생 고집으로 인하여 일을 그르치니 신중하라.



42년생 시간을 끌다 보니 일이 산더미로 싸임. 54년생 동료와의 불화가 있으니 양보하라. 66년생 이득을 위해 우기지 말고 질서를 존중. 78년생 재물이 목표였으나 나만 혼자 남아 허망. 90년생 즐거움으로 인해 다소 과한 지출이 예상.



43년생 꼼꼼함이 문제해결에 도움 된다. 55년생 적극적인 행동과 운세가 행운을. 67년생 사고가 있으니 일찍 귀가하는 것이 상策이다. 79년생 삼재팔난이니 초하루 기도를 해보는 것도. 91년생 남의 일에 참견하려거든 이성적으로 하여야.



44년생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56년생 친구 따라가다 손해를 보니 경기망동주의. 68년생 늦은 외출은 자제. 80년생 다른 계에서 만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듯. 92년생 서두르지 말고 내부 문제를 들여다보라.



45년생 방심하지 말고 급할수록 천천히. 57년생 현재의 환경과 동료들을 소중히 여겨야. 69년생 대표라도 다수의 의견을 종시해야 할 필요가. 81년생 등을 돌린 이성에게 연연하지 않도록 하자. 93년생 기본전환이 필요하니 산행이라도.



46년생 성실한 노력이 승부수다. 58년생 부동산에서 소식이 온다. 70년생 조금은 힘에 부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82년생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성실함을 개선해야 외면 받지 않는다. 94년생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다 큰코다친다.



47년생 새로운 변화가 오지만 쓸데없는 참견은 미움을 산다. 59년생 고민하던 일이 해결된다. 71년생 오후 음주는 하지 않아야. 83년생 삼재팔난이 재물 문제는 관용기도 발원으로 해보라. 95년생 감언이설의 즉흥적인 판단은 손실로 이어진다.



김상회의四季

황금과 다이아몬드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대부분이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은 거의 채굴이 되지 않으나 수정은 많이 난다. 수정은 여기저기 많기에 세계적으로 과거에 비해 가치가 크지 않다. 몹시도 귀하게 여겨지던 그리하여 황제와 왕의 전유물로 여기던 비취나 옥도 지금은 조금 값나가는 정도일 뿐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보석도 시대가 발전하니 보석이 아니라 그냥 돌에 비유될 만큼 가치가 하락한다. 보석이 보석인 이유는 희소성 때문인데, 희소성이 사라지고 나면 그 가치가 낮아지니 돌에 비유하게 된다. 요즘 다이아몬드가 그격이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화인 007 시리즈 중에 '다이아몬드여 영원히' (Diamond Forever)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보석 중의 보석이었던 다이아몬드의 시대도 저무는 중이다.

인공적으로 제조해낼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실제 다이아몬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바로 '랩 다이아몬드'를 말함이다. 랩 다이아몬드는 실험실(Laboratory)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인공 다이아몬드라는 편견도 있었지만, 문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물리적, 광학적으로 100% 같다. 이것이 밝혀지자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다이아몬드 채굴로 국가의 부를 이루던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곳은 과거보다 낮아진 수익으로 걱정이 커갈 것 같다. 그런데 금은 아직도 제조가 불가하다. 중세 때 연금술은 금을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금이야말로 '골드 포에버'가 되어 황금만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다. 금 채굴 금 광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금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금값은 보란 듯이 수직으로 상승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583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0111	2017년 3월 09일 제193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수소차 보조금 지원

오는 20일부터 신청 접수 받아
승용차 2950만원, 버스 3.5억 지원
세제감면, 주차요금·통행료 할인도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7.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이용 혜택을 제공해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네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나,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네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 /서울시

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 대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2016년 수소차 30대를 시범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소차 총 3604대(누적)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208억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290대와 수소 버스 35대 등 수소차 총 32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요금 50%·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 남산터널 훈장통행료 면제 등 실질적인 운영 혜택도 제공된다. 전체 승용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 대상에 보급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및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이며 공고 후 6개월 경과한 우선순위 물량 중 미집행분은 일반 물량과 통합해 보급한다.

수소 버스는 공항버스·통근버스 등으로 사용되는 고상 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공항·전세버스 500여 대를 무공해 수소 버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시는 수소차 전환 가속화에 대비해 2028년까지 ▲공영차고지 내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 4개소(가용 충전량 400대) ▲민간충전소 1개소(가용 충전량 40대)를 추가 확충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 운영되고 있는 수소충전소 9개소 13기(가용 충전량 5535대/일)는 작년 말 기준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 3442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규모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상암·양재·서초 문충전소에 사전 예약부터 충전, 자동 결제가 한 번에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 결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충전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보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소연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친환경 '수소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충전 인프라 또한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승용차·대중교통 등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차 보급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자연계 사탐 응시 55.5%… “정시서 유리”

과탐 응시자 54.8% “정시서 불리”
내년 입시 사탐린 현상 구조화 가능성

2026학년도 정시에서 자연계열 수험생 가운데 과탐 2과목 응시자는 절반 이상(54.8%)이 정시 지원 과정에서 불리함을 체감했다고 답했다. 반면 사탐 2과목 응시자는 유리했다는 응답이 절반에 근접했고, 불리하다는 응답은 20% 안팎에 그쳤다. 자연계열 내에서 탐구선택에 따른 체감격차가 확인되면서, 과탐 중심에서 사탐 포함 전략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정시 전략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14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정시 지원 수험생 16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교 이수과목 기준 자연계열 수험생(980명) 가운데 과탐 2과목 응시자의 54.8%가 “탐구 선택이 정시 지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자연계열임에도 사탐 2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은 47.6%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답

해 대조를 보였다.

사탐 2과목 응시자 중 ‘불리하게 작용 했다’는 응답은 18.5%였으며 ▲큰 영향 없었다(24.7%) ▲잘 모르겠다(9.1%)로 나타났다. 과탐 2과목 응시자의 경우 ▲유리하게 작용했다(19.0%) ▲큰 영향 없었다(18.8%) ▲잘 모르겠다(7.3%)였다.

과탐 응시자들이 체감한 불리함은 탐구 선택 변화로도 이어졌다. ‘탐구 선택이 불리했다’고 응답한 과탐 응시자 가운데 57.7%는 “다시 선택한다면 사회탐구를 고르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탐 1과목+과탐 1과목’ 조합이 41.4%로 가장 많았고, ‘사탐 2과목’을 택하겠다는 응답도 16.3%로 집계됐다.

자연계 수험생들의 탐구 선택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도 수치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자연계열 수험생의 55.5%가 수능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를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탐과 과탐을 1과목씩 응시한 비율은 27.4%였고, 사탐만 2과목

응시한 비율은 28.1%로 집계됐다. 사탐 2과목 응시 비율이 혼합 응시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자연계열 내 ‘탈과탐’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자연계열임에도 사회탐구를 선택한 이유(중복 응답)로는 ‘사탐이 점수 받기 유리하다고 판단해서’가 84.7%로 가장 많았고,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가 43.9%로 뒤를 이었다. 과탐 학습 부담과 상位권 경쟁을 고려해 점수 효율과 학습 전략 차원에서 탐구 선택을 조정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사탐 선택은 단순히 공부가 편해서가 아니라 실제 정시 지원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수험생들의 체감 수치로 확인된 결과”라며 “불리함을 체감한 과탐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재도전 시 사탐 선택 의사로 밝힌 만큼, 내년 입시에서도 사탐린 현상은 더욱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중외합작 판학’ 中 정부 승인

산동농업공정학원과 공동교육 운영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중국 산동농업공정학원과의 중외합작 판학프로그램을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중외합작 판학(辦學)사업은 중국 교육부의 승인을 바탕으로 교육·연구 역량

이 우수한 중국 대학과 외국 대학이 협력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중국 산동농업공정학원은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4년제 공립대학으로 지난(濟南)과 쪽보(淄博) 등 2곳에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영국, 러시아 등 20여 개 국가의 50여 개 대학·연구기관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갖추고 있다.

인하대는 중국 산동농업공정학원과 기계공학 전공에서 4+0 중외합작 판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9월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인하대에선 소속 전공 교수진이 중국 현지에 파견돼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2030년까지 매년 100명의 학생이 선발되며, 이들은 인하대의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한 후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게 된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美, 이란 추가 제재로 정권 옥죄다…트럼프 ‘군사 공격’ 지속 언급
▲ 사우디도 이스라엘도…이란 인접 국가, 미국에 공격 자체 촉구

▲ 中 작년 수출입 ‘사상 최대’ 9600조원…9년 연속 증가
▲ 볼턴 “트럼프 베네수엘라 ‘운영’ 정책 재앙적 실패한다”

▲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연명 서한 보내 앱스타 인 하원 증언 거부
▲ “中 앤비디아 H200 칩 수입, 특별 경우만 승인”…사실상 수입통제

연내 ‘청라~영종’ 잇는 자전거 길 생긴다

인천시, ‘300리 자전거 이음길’ 속도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청라와 영종을 해안선을 따라 자전거로 일주할 수 있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 사업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제3연륙교 자전거길을 포함해 인천의 해안·도심·도서 지역을 하나의 순환형 친환경 교통망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 자전거길은 인천 서구 정서진을 출발해 제3연륙교~해안남로~무의도~용유해변~해안북로~북도~미단시티~제3연륙교~청라호수공원~아라뱃길로 이어지는 순환 노선으로, 총연장 130km(300리)에 달한다. 현재 영종도 북측 등 미조성 구간 약 20km를 새로 연결해 하



서구 구간에 조성된 300리 자전거 이음길 쉼터.

나의 완결된 자전거 순환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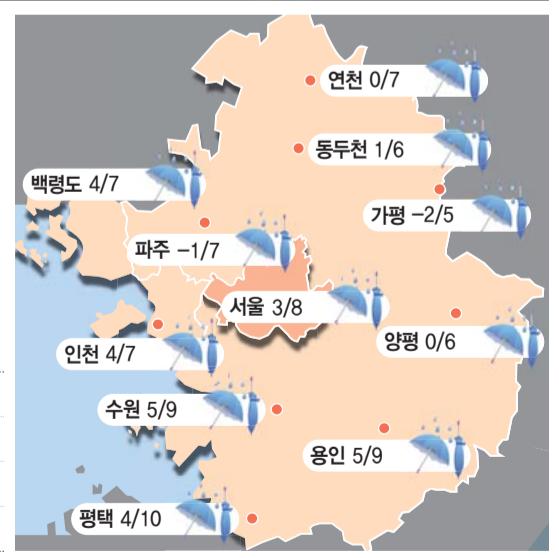
사업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용진군·중구·서구가 공동 참여하며, 휴게시설 3곳과 전망 포인트를 설치해 자전거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36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권역별 단계적 추진을 통하여 자전거 길·쉼터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오늘의 날씨

해뜰 / 07:46 | 해짐 / 17:3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 (주) www.kweather.co.kr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
홈플러스 한숨 돌려
L1

특허 줄줄이 만료
K-바이오시밀러
경쟁 본격화
L2



진~한 초콜릿 맛에 ‘풍덩’… 인기음료, 하나의 브랜드로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남양유업 ‘초코에몽’

남양유업의 스테디셀러 초코우유 브랜드 ‘초코에몽’이 누적 판매량 5억 개를 돌파하며 다시 한 번 메가히트 상품의 저력을 입증했다. 2011년 4월 출시 이후 14년간 소비자 선택을 받아온 결과로 초코우유라는 단일 카테고리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 자신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초코에몽의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초코에몽은 지난해 국내 오프라인 초코 가공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성장성이 제한적인 가공유 시장에서 장기간 정상 자리를 지켜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한 초코’로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다

초코에몽의 출발점은 명확했다. 출시 당시 초코 우유 시장은 단맛 위주의 제품이 주를 이뤘고, 소비자 기억에 각인된 메가브랜드는 부재했다. 남양유업은 이 공백을 ‘진한 초콜릿 맛’이라는 콘셉트로 공략했다.

초코에몽은 스페인산 코코아 분말과 국산 원유를 블렌딩해 초콜릿 본연의 깊고 부드러운 품미를 구현했다. 단순히 달기만 한 초코우유가 아닌, 초코와 우유의 균형을 강조한 점이 차별화 요소였다. 여기에 11가지 비타민과 칼슘, 엽산 등을 더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로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의 선택을 받았다. 이같은 제품력은 초코에몽을

어린이들의 ‘최애 초코우유’로 자리 잡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캐릭터에서 문화 코드로…세대를 확장한 브랜드

제품명과 패키지 전략 역시 초코에몽 성공의 중요한 축이다. 남양유업은 전 세대에 인지도가 높은 인기 캐릭터 ‘도라에몽’을 활용해 ‘초코에몽’이라는 직관적인 네이밍을 완성했다. 패키지 전면에 캐릭터를 배치해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층의 주목도를 높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브랜드 인지도 확장으로 이어졌다.

출시 초기 10대 학생층 중심 이던 소비층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장됐다. 특히 “초코에몽 마시려 갈래?”라는 표현이 연애 감정을 전하는 일종의 플러팅 코드로 쓰이면서 초코에몽은 2030세대에게도 감성을 공유하는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예능 프로



스테디셀러 ‘초코에몽’ 누적 5억개 판매
14년간 정상 지켜온 초코 가공유 ‘1위’

스페인 코코아분말, 국산 원유 블렌딩
초콜릿 본연의 깊고 부드러운 품미 구현
11가지 비타민, 칼슘 등 함유…영양 설계

캐릭터 ‘도라에몽’ 활용한 패키지 전략
어린이층·2030세대 친근감 동시 확보

딸기·말차맛, 생크림빵 등 라인업 확장
잘파세대 저격 브랜드 스토리텔링 강화

그램에서도 초코에몽을 활용하고 백·데이트 콘텐츠가 등장하며 브랜드 스토리는 소비자 주도로 확산됐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별도의 대규모 TV 광고나 CF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입소문과 콘텐츠 소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메가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초코에몽은 ‘자발적 확산형 브랜드’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제형·카테고리 확장…‘마시는 초코’에서 ‘즐기는 브랜드’로

남양유업은 소비자 반응을 제품 확장으로 빠르게 연결했다. 빨대를 꽂아 마시는 테트리팩을 시작으로 카툰팩, 분말형 스틱, 아이스 파우치, 캔 등 다양한 제형으로 카테고리를 넓혔다. 플레이어 역시 ‘딸기에몽’, ‘말차에몽’ 등으로 확장하며 선택지를 늘렸다.

여기에 아이스크림, 생크림빵 등으로 디저트 제품을 선보이며 초코에몽은 음료를 넘어 ‘먹고 즐기는 브랜드’로 진화했다. 소비자가 초코에몽을 열여 먹거나 디저트와 함께 즐기는 방식을 제품화한 결과다. 현재도 계절 한정과 테마 제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마케팅 전략 역시 제품만큼이나 변화했다. 남양유업은 ▲초코에몽 UCC ▲대학교 간식 이벤트 ▲레시피 콘테스트 등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2030세대와의 접점을 넓혀왔다. 초코에몽을 모티브로 한 웹드라마 ‘친하게? 아니 달콤하게?’를 공개하며 잘파(Z+알파)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브랜드 스토리텔링도 강화했다.

이같은 전략은 초코에몽을 단순 음료가 아닌 감성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브랜드로 인식시키는데 기여했다.

초코에몽은 남양유업 내부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불가리스에 이은 또 하나의 메가히트 상품으로, 가공유 부문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월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이후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초코에몽은 ‘변하지 않는 경쟁력’을 보여주는 브랜드로 평가받는다.

남양유업은 ‘맛있는우유GT’, ‘아이엠마더’, ‘불가리스’, ‘17차’, ‘레이크핏’ 등 주력 브랜드와 함께 초코에몽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연结 기준 당기순이익이 6년 만에 흑자 전환되며 경영 정상화의 신호탄을 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seoul.co.kr



초코에몽 초코 생크림빵.



초코에몽 아이스크림.



딸기에몽.



말차에몽.

출시 초기 10대 학생층 중심 이던 소비층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장됐다. 특히 “초코에몽 마시려 갈래?”라는 표현이 연애 감정을 전하는 일종의 플러팅 코드로 쓰이면서 초코에몽은 2030세대에게도 감성을 공유하는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예능 프로

진하고 달콤한 말차맛 드립인기!

▲국민 63% “패럴림픽 중계 확대 필요”…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프로당구 크라운해태, 피아비 내세운 우리금융 꺾고 팀리그 준PO행

/사진 뉴시스



▲‘프로·아마 총망라’ 바둑 블리츠오픈, 본선 진출자 32명 확정
▲알파인스키 최강자 시프린, 시즌 6번째 월드컵 금메달 획득

▲문체부, 8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9명 위촉…위원장 조상진
▲통영문화재단, 삼도수군통제영 내 크리에이티브 허브로 사무실 이전



▲국민 63% “패럴림픽 중계 확대 필요”…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프로당구 크라운해태, 피아비 내세운 우리금융 꺾고 팀리그 준PO행

/사진 뉴시스

SK telecom

마음은 이미 로밍 중

T로밍 baro 요금제 하나면다양한 멤버십 혜택
클럽 T로밍에이닷 전화로
baro 음성통화 무료온 가족 로밍 해결
가족로밍0청년 고객님
로밍 50% 할인

자세히 보기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서 기본 제공 | 가족로밍 요금제는 대표 외선이 추가 가입(3,000원)하면 최대 4명의 가족과 공유 가능 (단, SK텔레콤 가족 결합 상품 가입 또는 기족 관계 증명서로 증명 필수) | 에이닷전화로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로밍 요금 미발생(한국 및 해외 국가 외 발신 제외) | 클럽T로밍 혜택은 T멤버십 앱에서 확인 가능 | 로밍 50% 할인은 baro 요금제 가입 후 로밍 데이터 사용을 시작한 시점에 0청년 요금제를 이용 중인 경우에만 제공 | 더 자세한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금 에이닷에게 【baro 요금제】를 물어보세요.

